

코스피(16일) ▲ 2543.03 (+49.16P)	코스닥 ▲ 847.33 (+8.19P)
환율(달러당 원화) ▼ 1109.30 (-6.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 0.970% (+0.005%p)

〈24만 명〉

코로나에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 “우린 배울 권리 없나요”

“학교를 나간 순간부터 네 인생을 망친 거야.”

이투데이는 최근 4명의 ‘학교 밖 청소년’과 만났다. 신분 노출을 꺼린 청소년과는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청소년의 마음에 하나같이 비수로 쏘인 말은 ‘너 인생 망쳤다’였다. ▶관련기사 3면

학교 밖 청소년은 자퇴나 퇴학 등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만 9~24세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연은 천차만별이다. 불우한 환경 탓도 있지만, 다른 꿈을 향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있다.

자이든 타이든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아이들이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학교 밖 청소년 24만 명 가운데 지원시설(꿈드림센터)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20%인 4만8000여 명에 불과하다.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청소년에게 특히 울리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꿈드림센터’ 이용 4.8만명 불과 그나마 시설 문 닫아 활동 못하고 대학문턱 더 높아져 진로 ‘깜깜’ 사설학원 부담에 ‘문제아’ 편견도

“학교를 나간다고 하자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엄청 말렸어요. ‘전교 꼴등을 해도 좋으니 제발 졸업장만 받아’라고요.”

특성화고교에 다니던 이혜리(18·가명) 양은 고2 때 배정받은 전공이 원하던 ‘영상 부문’이 아닌 ‘금융 부문’이 되자 학교를 그만뒀다.

이 양은 꿈드림센터에서 미래를 찾아나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꿈드림센터가 5개월간 문을 닫자 상황이 달라졌다.

애초 이 양은 부모님에게 꿈드림센터에 다니며 점검고시와 대입을 준비할 테니 사교육비에서는 금전적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이 양은 “저 같은 학교 밖 아이들은 대입까지 목표로 하고 있



학교 밖 청소년이 한 카페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면서 “예상치 않게 센터가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입의 벽은 더 높아졌다. 특히 수시 지원이 어려웠다. 최근 대학은 신입생 대부분을 수시로 뽑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선발 비율도 수시 77%, 정시 23%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응시하기 어렵다.

이 양은 “꿈드림센터가 문을 닫으니 센터에서 하는 자격증·봉사활동·진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막혔다”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수행평가로 대체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데 우리(학교 밖 청소년)는 자기소개서에 적어 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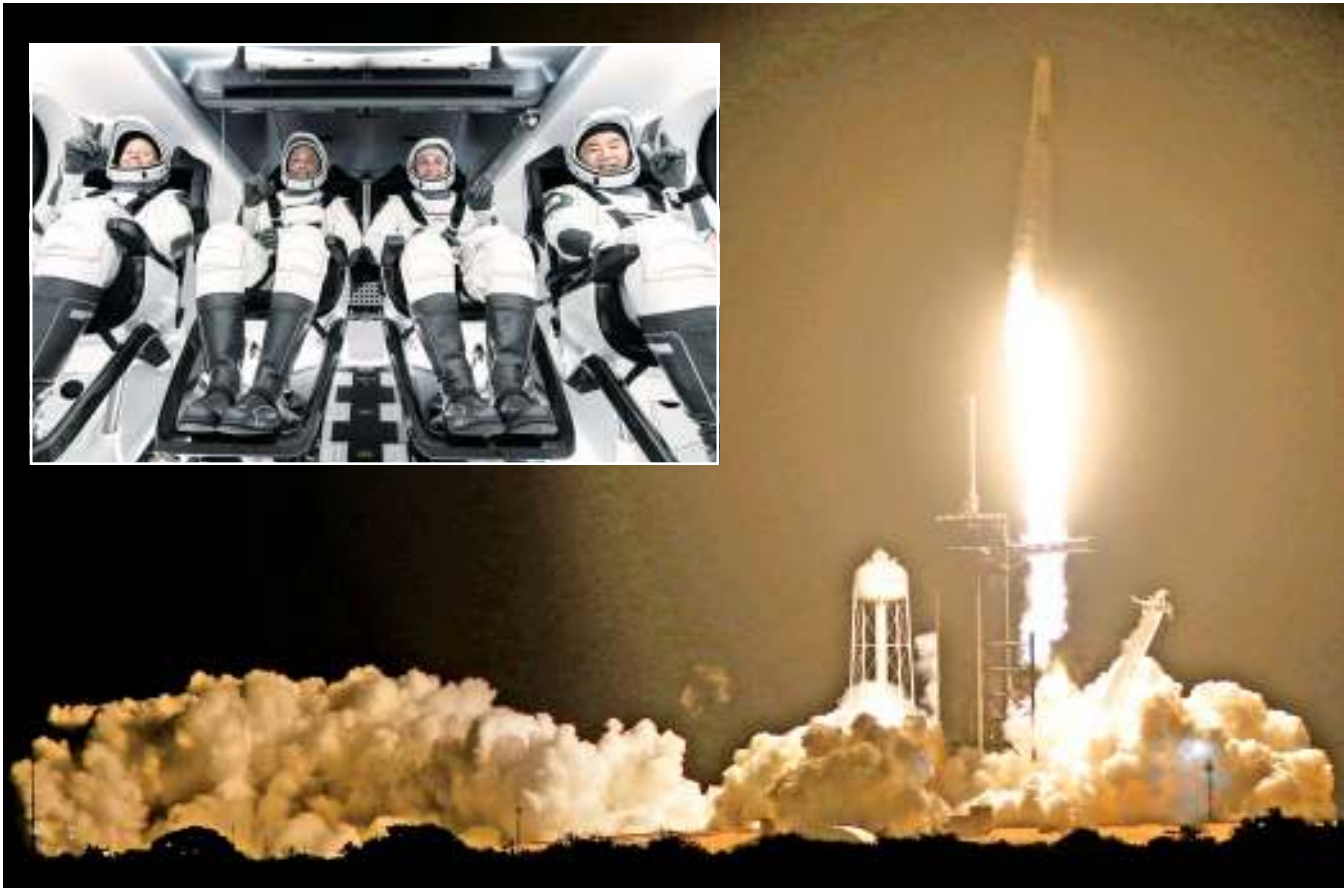
게 마땅히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술 등 실기로 대학을 가려는 학교 밖 아이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김연지(16·가명) 양은 마포 꿈드림센터가 코로나19로 휴관하자 사설 소규모 미술학원에 다니며 대입 실기를 준비 중이다. 김 양은 “센터에서는 한 달에 미술 관련 수업을 5회 이상 들으면 25만 원가량을 지원해줬는데 사설 학원은 12회에 60만 원이 들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학교 밖 시설의 원격수업 대응도 미흡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 휴관 기간에 ‘온라인 수강권’을 받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공용 아이디를 부여받고 공부를 이어갔다.

김 양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줌’(Zoom)과 구글 클래스룸 등 플랫폼을 활용한 1대1 비대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해서 받을 때 센터에서 청소년끼리 온라인 강의를 아이디 하나로 돌려 보는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손현경 기자 son89@



‘스페이스X’ 유인선 발사 성공

미국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 1호기를 탑재하고 15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작은 사진은 9월 우주선 안에서 훈련 중 기념사진을 찍은 우주인들. 왼쪽부터 여성 물리학자 새넌 워커, 흑인 우주비행사 최초로 ISS에 장기 체류하게 된 빅터 글로버, 선장 마이크 홀킨스, 일본인 우주비행사 노구치 소이치. ▶관련기사 9면

한국닛산 서비스 전담 우선협상자 ‘KCC오토’

8년간 보증수리·부품수입 맡아

한국시장 철수를 선언한 한국닛산이 애프터서비스(AS)와 부품 수입 등을 전담할 ‘서비스 법인’ 우선협상대상자로 KCC오토그룹을 선정했다.

16일 한국닛산 관계자는 “닛산과 인피니티 공식 딜러였던 KCC오토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향후 서비스 전담 조직 출범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이달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5월 수입차 시장 철수를 선언하면서 “영업은 2020년 12월 종료하지만, 기존의 닛산과 인피니티 고객을 위한 신차 보증과 부품 공급 등은 2028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닛산과 인피니티의 서비스 조직 선정을 놓고 코오롱모빌리티와 르노삼성 정비협업체, KCC오토그룹 등이 경합을 벌였다. 결국 지난달 말 KCC오토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한국닛산은 KCC오토그룹의 서비스 전담 법인 설립과 관련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C오토그룹은 수입차 시장에서 메이저 공식 딜러사다. △메르세데스-벤츠(KCC오토) △혼다(KCC모터스) △포르쉐(아우토슈타트) △재규어&랜드로버(KCC오토모빌) △인피니티(프리미어 오토) △닛산(프리미어 오토모빌) 등 5개 법인의 7개 브랜드 공식 딜러로 활동 중이다.

KCC오토그룹은 향후 각 지역 닛산·인피니티 딜러사와 협의해 주요 지역의 서비스 및 부품 수입 등을 전담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대한항공, 아시아나 ‘1.8兆 인수’ 세계 7위 규모 국적 항공사 탄생

산은, 한진칼과 8000억 투자계약 내년 하반기 통합...수익성 제고 기대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한다. 인수계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 탄생하는 통합 항공사는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대형 항공사로 거듭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양사 통합을 핵심으로 한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산은은 한진칼과 총 8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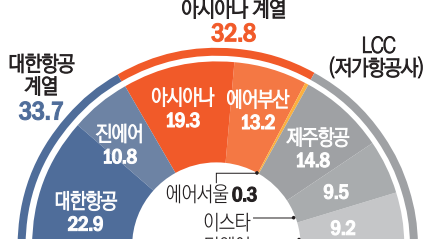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5000억 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000억 원) 및 영구채(3000억 원)로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4·5면

산은은 “통합 시너지를 기반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 시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산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대 항공사 통합 추진은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 재편 등 근본적 경쟁력 제고 노력 없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내 국적 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미국

국내선 국적항공사 점유율

(단위: %, 2019년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항공사 규모를 불문하고 규모의 항공사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인구 1억 명 이상의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1국가 1국적 항공사 체제로 재편됐다.

통합 국적 항공사는 운송량을 단순 합산할 경우 세계 19위(대한항공)에서 7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한다. 산은은 노선 운영 합리화, 운영비용 절감, 이자 비용 축소 등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항 스케줄 및 연결편 개선, 노선 확대, 마일리지 통합 등 국내 항공 소비자의 편의 향상 효과를 노린다.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단계적 통합으로 국내 LCC 시장 재편,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통합에 따른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국제선 66.7%가 외국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어 급격한 운임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집값 잡겠다더니… 시장 왜곡 부르는 신용대출 규제

‘DSR 40% 규제’ 구멍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안을 내놨지만 ‘빈틈’ 투성이 대책으로 실효성보다 되레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신용대출 규제안은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별적 대출 규제로 비규제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대출 규제 ‘비규제지역’은 제외= 16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 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 또 연봉 8000만 원 이상 소득

비규제지역은 제외… ‘풍선효과’

부부가 9900만원씩 대출 받아

비규제지역 집 사도 제재 못해

전문가 “무주택자 대상 예외 뒀아”

자가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을 막아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빈틈이 많다. 우선 신용대출 1억 원 미만은 대출 회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에도 대출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난다. 극단적으로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는 것은 가능한 셈이다. 이는 일부 고소득자의 투자 목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목적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부산시 등 비규제 지역 집값이 급등한 상황을 제어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이들 지역에 대출 규제를 피하려



는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서울에서 전세난을 피해 온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 충남 계룡시와 울산 등 지방 비규제지역 역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다. 비규제지역은 이번 대출 규제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풍선효과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김포 아파트값은 1.91% 올랐다. 이달 첫째 주 1.94% 올라 최근 2주 동안 무려 4% 가깝게 급등한 것이다. 파주시 역시 최근 2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0.37%와 0.4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에 불과했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도 역대 최고 수준

이다. 지난주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0.5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 등 규제지역과 인접한 충남 계룡시는 지난 3개월간 집값이 3.34%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주로 비규제지역”이라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출과 세금 면에서 주택 구입 진입 문턱이 규제지역보다 낮은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좁아진 대출문·무주택자 ‘부글부글’= 정부가 신용대출의 문턱마저 높이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DSR 규제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신용대출 1억 원 기준을 더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복으로 규제하게 됐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아예 집을 못 사게 사다리를 철거해 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내년 최고금리 24% → 20%… 3.9만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정부, 법정 금리 인하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24%)보다 4%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향후 3~4년간 약 32만 명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고,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약 4만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줄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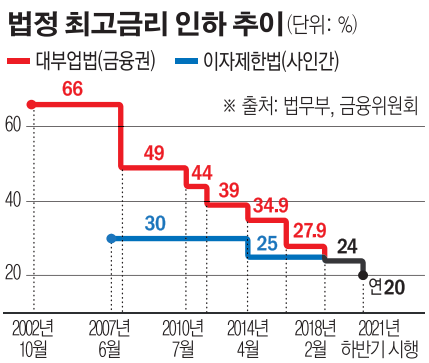
대출한도 줄고 만기 연장 악영향

“정책금융 확대 등 부작용 최소화”

우려가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최고금리를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한 번 내려가게 됐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다. 정부는 “2018년 2월 지난 금리 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를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

황”이라며 “현재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여건이 급변할 경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인하할 방침인데,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라고 설명한다.

최고금리 20%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 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지난 3월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 즉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자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지연 기자 sjy@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 1

쇼핑에 아트와 체험을 더한
국내 최초 신개념 갤러리형 아울렛 SPACE1을 남양주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

세계적 아티스트 하이메 아온이 설계한 조각공원, 아웃도어 가든에서 펼쳐지는 액티비티, 문화와 예술로 채워지는 프리미엄 쇼핑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Hayon Studio

h point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아울렛 현대백화점점세점 한성 현대리마트 현대HCN 현대렌탈캐어 현대그린푸드 현대드림투어 현대Hmall 더현대닷컴 더한섬닷컴 H패션올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시설 폐쇄에 지원 끊겨... 공교육 벗어나니 기회마저 차별

교육·방역 사각지대

전국 학교, 등교중단 1% 미만일 때
꿈드림센터는 10곳 중 8곳 ‘휴관’
스마트 기기 지원, 절반도 못 받아
마스크 ‘달랑 2장’ 지급...방역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휴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및 방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벼랑 끝에 서 있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꿈드림센터(센터) 휴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전체 센터 218곳 중 평균 188곳이 휴관했다.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에 약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개발원)은 전국 센터를 통해 4만8250명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과 직업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엔 194곳(90.2%)이 휴관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한 3월부터 6월까지 거의 모든 센터인 215곳(99%)이 문을 닫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 운영을 하기도 했다. 확진자 수가 주춤했던 7월 들어서는 80곳(36.5%)으로 줄었으나 8-9월엔 각각 183곳(83.5%), 181곳(82.6%)이 문을 닫았다.

전국 2만902곳의 학교는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개 1% 미만의 학교만 등교를 중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센터가 휴관과 재운영을 반복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 센터’ 운영 현황

시기	학교 등교	센터 휴관
2월	1차 등교 연기	194개소(90.2%)
3월	2·3·4차 등교 연기	215개소(100%)
4~6월	5월 13일 고3 등교 시작으로 학년별 순차 등교	3월 이후 전체 휴관(지역별 재운영)
7월	26개교(0.1%) 등교 중단	80개소(36.5%)
8월	7507개교(36.9%) 등교 중단	183개소(83.5%)
9월	1057개교(0.5%) 등교 중단	181개소(82.6%)

※출처: 여가부·교육부

의 교육과 방역 공백이 드러났다.

개발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현황’에 따르면 218개 센터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0곳이 스마트기기를 지원받지 못했다. 최근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원받은 스마트 기기는 534대에 불과하다. 1만2000여 곳의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당 60개의 스마트 기기가 지원된 것과 대비된다.

생활 방역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열악했다. 1~9월 4만8250명의 청소년에게 지원된 마스크는 8만6544장이다. 9개월간 1인당 평균 2장의 마스크를 받은 셈이다.

학교 안 아이들은 올해 1인당 평균 10장 이상의 마스크를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1학기에 학생 1인당 평균 4.5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줬다. 2학기엔 학생 1인당 마스크 6장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법정 수업 시수를 지키면서 학생들을 등교시켰지만 학교 밖 지원센터는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부분 휴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밖 아이들이 교육과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과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현황 파악 미흡

지자체마다 운영지침·지원방식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 위한 표준화 정책 절실

공교육을 받는 ‘학교 안 청소년’은 정부 산하인 교육부와 교육자치 주체인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거부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면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곳은 여가부, 교육부·각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 시설 위탁시설 등 다양하다. 여가부가 중앙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역 센터 등을 설치하면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실행하는 식이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지침을 다르게 내놓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 산하 A꿈드림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1~5월, 8~9월 중순까지 휴관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수업 지원과 센터 내에서 실시하던 단체 급식도 중지됐다. 진로체험·자격증 활동 등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못했다. 가정으로 급식 꾸러미는 배송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밖 센터 원격운영 △검정고시 원격 멘토링 △학력 인정 찾아가는 학습지원 △교육참여수당 지급 등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원 기간 간 표준화된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청소년 복지 관련 정책은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희 기자 ksh@



이투데이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났다. 불우한 환경 탓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도 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학교 밖 청소년 만나보니

▶1면서 계속

◇코로나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회적 편견=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한 최한나(18·가명) 양은 사회적기업 A사가 지원하는 자립매장 B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최 양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미용학원 비용을 댈 수 없었다.

그런 최 양의 꿈을 지켜준 것은 A사다. 사실 B카페에서 일하기 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인 최 양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최 양은 “‘일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나 가라’는 말을 점장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니깐 더욱 어려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퇴생=문제아’라는 낙인이다. 고1 때 자퇴한 강욱재(18·가명) 군은 또래 친구들보다 1년 일찍 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학교를 나와 검정고시와 대입 등을 준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라는 시선을 계속 느껴왔다고 했다.

강 군은 “코로나19로 모든 청소년이 보건, 교육 부문에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소외당하고 있다”며 “공교육에서 벗어나 자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코로나로 배울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해 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늘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동네를 지켜온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낮엔 쉬어 가라며 길을 내어주고
밤엔 조심히 가라며 길을 비춰주던
그 가게들을,
이젠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영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입지 및 상권, 고객 분석 | 세무관리 및 절세전략 | 소상공인 관련 법령 | 홍보 및 유통 관로 확장을 위한 마케팅 교육

※ NH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02981(2020.10.12~2021.12.31) ※ 관리부서 : NH농협은행 기업고객부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수송보국, 시대적 사명”…두번째 ‘역발상 투자’

올 초 과감한 화물사업 확대로 나홀로 흑자 기록
코로나 침체 전이면 백신 수송 등 ‘고진감래’ 기대

“인수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수송으로 국가에 이바지한다’라는 한진그룹의 창업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악조건 속에서 대한항공이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것은 항공업 경쟁력 강화를 중요시하는 조 회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고 업계는 해석했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항공업 중심의 경영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사업구상에 대해 “항공운송과 관련된 사업 외에 관심이 없다. 대한항공이 주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수 발표 때도 조 회장은 수송으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수송보국’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은 반세기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성장했다”며 “이제 대

한민국 선도항공사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윤리경영·책임경영·투명경영을 원칙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리적인 운영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겠다”고 당부했다.

“위기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 회장의 평소 지론도 과감한 결단에 한몫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화물사업본부장을 지낸 조 회장은 2010년 경기 침체에도 보잉777F 등 최신 고효율 화물기 도입을 추진했다. 여객 사업에만 의존하는 매출 구조를 버리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최대 30대까지 운영하던 화물기를 절반 가까이 줄이자는 의견이 있을 때도 당시 총괄부사장이었던 조 회장은 반대의 기사가 있을 것이라고 경영진을 설득했다.

조 회장의 결단은 코로나19 때 빛을 봤다. 화물 사업을 강화한 덕택에 대한항공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올해 2분기(1485억 원)에 이어 3분기(76억 원)에도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의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일본 전일본공수(ANA) 등 글로벌 항공사들이 조 단위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조적인 행보다.



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조적인 행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대한항공이 당분간 겪을 후유증은 상당하다. 부채비율이 2291%(올해 6월 기준)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악화한 재정구조는 대한항공에 타격을 미친다. 더욱이 여행 수요 발목을 잡는 코로나19는 여전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쇼크로 국제선 여객 수요는 예년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를 견디면 대한항공이 거둘 이익은 상당하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대한항공의 국제 여객 수송 능력은 글로벌 항공사 중 10위로 올라선다. 국제 화물 수송량 순위에서는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대한항공의 화물 사업은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

회(IATA)로부터 의약품 운송을 위한 자격인 국제표준인증(CEIV 파르마)을 취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조, 주주연합의 반발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다면 대한항공은 이른 시기에 인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계열사 LCC도 단계적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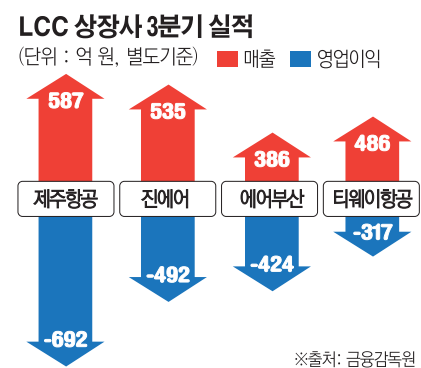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항공시장 재편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업은행도 저비용항공사(LCC)의 단계적 통합을 공식화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항공사가 지나치게 많아서다. 32년 동안 복수 대형 항공사 체제를 유지했던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가 많은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대형항공사는 하나에 불과하다.

佛·獨 등 1국가 1대형항공사
“독과점 우려보다 효율성 커”

우리나라가 머뭇거리는 사이 해외 항공업 구조조정은 최근까지도 활발히 이뤄졌다.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2000년 이후 스위스항공, 오스트리아항공, 브뤼셀항공을 차례로 사들였다. 2017년에는 독일 2위 항공사인 에어베를린도 인수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1국가 1국적(대형)항공



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소비자로서는 독과점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두 항공사가 공급했던 노선을 하나로 묶게 되면서 효율성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갈 이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비용도 대한항공이 크게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제선의 경우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 등 여러 경쟁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

였다. 항공시장 재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날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LCC 자회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LCC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단계적 통합으로 국내 LCC 시장 재편과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 및 통합 후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42.2%에 에어서울·에어부산·진에어 등까지 합치면 62.5%에 달한다. 이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계열사 간 통폐합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앞서 제기됐다.

통합 LCC가 등장하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신규 LCC 등 타 LCC는 자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노선이 겹치는 데다 일본 발매운동,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지속하면서 모회사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다. 이미 업계에서 도태된 항공사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결렬된 이스타항공은 아직도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비행기를 띄운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다.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운항증명(AOC)조차 받지 못했다. 산은은 “항공사의 M&A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한영대 기자 yeongdai@

구조조정 없다지만...양사 5개 노조 “합병 반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화됐으나 실제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사 노동조합이 합병 반대를 선언하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양사 합병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두 회사에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 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총 5개의 노조가 있어 합병 과정에서 담당 업무에 따라 의견이 엇갈려 노노 갈등도 우려된다. 일단 양사 노조는 이날 긴급 회동 후 “양사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한 듯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아

중복 인력으로 고용 불안 주장
조원태 회장 “일자리 지키겠다”

시아나항공은 인수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양사의 중복 인력은 관리직 등 간접부문 800~1000명”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연간 자연감소 인원과 통합작업, 신규사업 등으로 인한 인력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한진의 확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복 노선·시설 등의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 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고용 유지 원칙하에 신규노선 개척, 항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본 M&A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강서구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 양사 합병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드리는 말씀’을 통해 “양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임직원들이 모든 처우와 복지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사내 메시지를 통해 “(인수) 거래 종결 이후에도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항공운송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장단기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자본잠식,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 본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 오히려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이

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 노선 개척, 항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증진한다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 업계 인수는 중복 인력 발생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항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2021년 추가 정책자금〉

8000억 투입 산은 “항공통합 안 되면 혈세 4.8조 필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는 항공업계 ‘빅딜’에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쓰인다. 산은은 한진칼의 새 주주가 된다. 사실상 산은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한 셈이다. 이미 두 항공사는 거액의 자금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 이번 통합안을 두고 혈세 과잉 낭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은은 항공업계의 경쟁 심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 두 항공사의 통합만이 유일한 위기 ‘탈출구’라고 봤다. 산은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이번 거래는 한진칼 아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순차적으로 묶는 구조로 이뤄진다. 산은은 총 8000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해 한진칼이 ‘제3자 배정’으로 발행하는 신주 5000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EB)를 사들이는 데 쓴다.

한진칼은 산은을 통해 얻은 ‘총알’을 바탕으로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유상증자(한진칼 7300억 원)에 참여한다. 이 주주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는 총 2조5000억 원 규모다. 그중 1조50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사고, 3000억 원으로는 영구채를 인수한다. 앞서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가져오는 방식이 거론됐으나, 실제로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남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금액은 향후 PMI(통합 후 합병) 실행에 필요한 유동성 및 자본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종결될 때까지 부족한 자금(1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산은은 이번 계약이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 ‘통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 산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매각이 실패한 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통합

러브콜 받은 5대 그룹 모두 저절로 “대한항공과 합병 유일한 탈출구” 정책 자금 줄여 ‘남는 장사’ 강조

안을 고려했다. 한진그룹 외에도 5대 계열 그룹 및 항공사를 경영하는 타 그룹사에도 의견을 개진했으나, 재무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한진그룹만 특정하고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후 한진그룹이 항공업계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산은과 뜻을 같이했고, 이번 합병안이 도출됐다.

특히 산업 배경도 한몫했다. 글로벌 항공 산업 경쟁 심화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 경쟁력 제고나 노력 없이는 국내 국적 항공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항공사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이번 통합을 통해 탄생하는 국적 항공사는 세계 7위권의 위상을 가질 것으로 산은은 예상했다. 이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2019년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19위)과 아시아나항공(29위)의 운송량을 단순 합산한 수치다.

합병 후 통합과정에서 LCC 3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대한 단계적 통합도 이뤄진다. 산은은 “통합된 LCC 규모는 동북아시아에선 최대, 아시아권에선 에어아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 국내 LCC 시장 재편과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Second Hub) 구축 및 통합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은은 분석했다.

정책자금 추가 투입에 대한 위험 요소가 고려됐다. 두 항공사를 분리해 운영할 경우 앞으로 추가적 ‘혈세’가 투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이 향후 벌어질 위기를 수습하는 데 쓰일 금액보다는 적다고 봤다. 최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대 항공사의 체제를 유지하면 2021년 말까지 4조8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자 전환 및 감자 채무 탕감 등으로 채권단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조속히 시행해 연말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본확충 및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이 “통합작업은 고용안정과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구조를 만들어 정책자금 투입 횡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산은 “대출 아닌 지분 10% 투자” ‘경영권 분쟁 해소’ 사전작업 병행

한진칼에 윤리경영위 설치 합의 KCGI “주주만 희생 강요” 반발

산업은행이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진행하면서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에 총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은이 5000억 원의 주식을 사들이면 산은은 한진칼 지분 약 10%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진칼의 경우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41.14%)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46.71%) 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지원으로 산은이 한진칼의 새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휘말리게 됐다. 그런데도 산은이 한진칼을 통한 투자를 계획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산은은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이 두 항공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단순히 경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진칼을 통한 지원은 대한항공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대규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대한 유상증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 점도 고려됐다. 만약 한진칼이 향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주사 요건(20%)에 미달돼 지분율이 하락한다. 대

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할 경우엔 더 하락하게 된다. 산은으로서는 한진칼을 점으로써 대한항공의 자금 지원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산은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산은은 앞서 경영권 분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했다. 우선 한진칼 및 주요 경영진과 계열 주주 간의 윤리경영 등을 감독하기 위해 사내에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그룹 일가는 윤리위 권고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고,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일가에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해당된다. 다만 3자 연합으로부터의 반발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산은이 통합계획을 발표한 직후 한진칼의 3자 연합 측인 KCGI는 “조원태 회장의 단 1원의 사채출연도 없이, 오직 국민의 혈세만을 이용해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및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조 회장의 시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일반주주 및 임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해외 수력발전소 건설

스마트 원자로 연구개발

SMART

한수원씨! 다음엔 어느 나라에 진출할 거야?

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에이치스카우터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딜리버리히어로〉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獨 DH 반발

조건부 승인 심사보고서 발송
업계 1·2위 결합 땐 점유율 90%
DH “과도한 조건… 동의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에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제시하면서 ‘배달앱 공룡’ 탄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정위는 DH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승인을 위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아직 시정내용과 심사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일정상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업계에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DH의 한국 지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현재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자본 87%를 40억 달러(약 4조4300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딜리버리히어로 결합사 점유율은 90.9%로 집계된다. 닐스코리아클릭이 집계한 실사용자 기준 배달앱 점유율에 따르면 배민이 59.7%, 요기요가 30.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배

달통(1.2%)까지 더한 값이다. 지난해 말 98%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수수료 인상 제한 등과 비교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은 음식점 사장,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H는 전원회의 전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DH는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국내 AI 발생 위험 높은 시기 철새도래지 낚시·산책 자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
정부 “부처·지자체 방역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급격히 커지면서 정부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낚시와 산책 등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미 인접한 일본에서는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농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한 뒤 가금농가로 전염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만큼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 태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사진>’에서 “해의 발생 및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AI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관계부처·기관, 각 지자체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바퀴, 신발 등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낚시와 산책을 위한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와 야산, 소하천을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해외 8개국에서 고병원성 AI는 108건이 발생했다. 직전 1주일



간 발생한 68건에서 약 60%가 증가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달 30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뒤 이달 들어 최근 10일 사이 카가와현 가금농장에서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2건의 의사환축(의심가축)도 신고됐다. 이에 따른 가금 피해는 46만 마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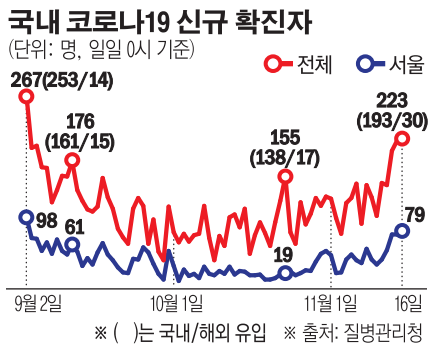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서는 올해 겨울 2년 8개월 만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천안 봉강천, 용인 청미천, 천안 병천천에 이어 14일 경기 이천 북하천 야생조류에서 4번째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러스 검출 지역의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까지 3중 차단망을 만들고 전파 가능성을 차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일 약 2000여 호의 가금농장에 의심증상 예찰을 진행하고, 농장 단위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약 4500여 호의 전업 가금농장에는 방역수칙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수도권·강원 오늘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할 듯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200명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감염 급증
“2~4주 뒤 400명 발생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 일일 확진환자가 사흘째 200명을 웃돌고 있는 데 더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발생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23명 증가한 2만87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193명, 해외유입은 30명이다. 국내 발생은 지난 주말부터 급증세다. 완화·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7일 이후 잠복기(통상 5~7일)가 종료되자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미 1단계 기준치를 넘어섰다. 천안시·아산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충청권도 위험수위다.

이날 12시(정오) 기준으로 수도권 미술대학원·동아리(14명), 충북 음성군 기도원(10명),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19명), 전남 순천시 음식점(6명)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서울 동작구 카페(신규 5명, 누적 21명), 강서구 병원(신규 7명, 누적 17명) 등 기존 감염경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과 강원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고위관계자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오늘 정한 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의 경우, 시설별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도 해당 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날 해당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9개 중점관리시설의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시설별로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과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 참석인원도 좌석 수 30% 이내만 허용된다. 방대본도 현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4주간(10월 11일~11월 7일) 전체 확진자 중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은 49.1%로 직전 4주보다 10.8%포인트(P) 상승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청·장년층은 비율의 문제도 있고, 절대 규모의 문제도 있다”며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확률은 청·장년층도 상당히 높으므로 청·장년층에 대한 진단검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을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산지수는 현재 1.12로 1을 넘는 상황이기에 다양한 단기예측, 한 2~4주 후의 예측의 결과를 보면 (일일 확진자가) 300~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의료대응체계(붕괴)로 대규모 발생이 올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신차 효과에… 국내 車판매 ‘질주’

작년보다 1.7% ↑ … 국산차 톱5
수출·생산 한 달 만에 감소세

지난달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이를 줄여도 자동차 국내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베스트 셀링카 톱(Top) 5가 모두 국산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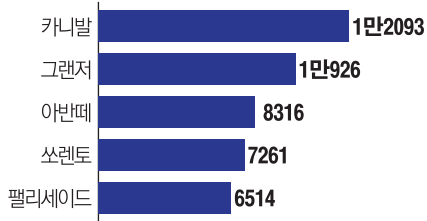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16만151대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2일 적었음에도 신차효과와 국산차 판매 증가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가장 많이 팔린 차 상위 5위를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는 점이다. 카니발이 1만2093대로 1위를 기록했으며, 그랜저(1만926대), 아반떼(8316대), 쏠렌토(7261대), 팰리세이드(6514대)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누적 판매로는 그랜저가 12만4736대를 팔아 2위 K5(7만2175대), 3위 아반떼(7만1886대)를 크게 따돌리고 1위를 기록 중이지만 지난달에는 최근 출시된 카니발이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내수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자동차 수출과 생산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를 기

지난달 자동차 판매 순위 톱5 (단위: 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록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한국지엠 노사 갈등에 따른 부분파업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4.3% 감소한 33만6279대로 집계됐다. 한국지엠은 내수 판매와 수출은 늘었지만, 특근과 잔업 미실시 및 부분파업으로 전달보다 생산이 약 7000대 줄었다. 이는 10월 완성차 전체 생산 감소의 45.7%를 차지한다. 다만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하루 평균 생산은 5.8% 늘어난 1만7699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미국 등 주요 시장 판매 회복세에도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3.2% 줄어든 20만666대에 머물렀다.

다만 하루 평균 수출은 1만561대로 7.0% 늘었다. 또 수출 금액도 고부가가치 차량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친환경 차 수출 비중이 늘면서 40억2000만 달러를 달성, 전년 동월 대비 5.8% 늘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언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與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발의… 정의당 “하나 마나”

기업 반발 우려 중대재해법 발빠
노동계 “노동자·시민 우통” 반발
국민의힘도 입법서 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사실상 발 빠른 모습을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이는 추세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서자 정의당만 난처한 상황이 됐다.

장철민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의무를 강화해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 의원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낙연 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공언한 것처럼 중

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모양새였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기업의 반발을 우려해 산안법을 개정하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중대재해법으로 다시 뜻을 모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당 정책위에서도 산안법으로 당론이 기울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엔 처리한다는 우리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았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법과 달리 처벌이 약해 원청과 기업 경영자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경영책임자 처벌조항도 아예 없고 개인의 경우 (벌금) 450만 원에서 겨우 50만 원 올려놓고 법인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려놔다”며

“사람 목숨값 갖고 장난하는 거냐”고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하나 마나 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당론 채택을 위한 교란·이중플레이용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며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은 대국민 약속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날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당론을 묻는 말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계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답하며 중대재해법 처리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박준상 기자 joonoon@



김정은, 바이든 당선에 침묵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25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은 지 일주일도 남도록 침묵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 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개선 TF’ 구성

초당적 방미대표단 추진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방침이다.

또 여야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초당적 방미 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 양당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경과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

의했다. 우선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21대 첫 국회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재보궐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직 예산안 심의 중이지만, 올해만 100조 원 넘는 국채를 발행해 예산 편성했는데 상환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유승민 ‘부동산 정책’ 각 세우며 정치 활동 재개

첫 행보로 부동산 토론회 열어… 김종인, 청약시장 현장 점검

21대 총선 이후 약 7개월가량 잠행을 이어온 대권 잠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활동 재개와 대권 행보를 위한 방아쇠를 당겼다. 유 전 의원은 첫 공식 행보로 부동산 문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선택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 근처에 사무실 ‘희망22’를 열고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 전 의원은 “희망22는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는 기대를 의미한다”면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퇴출 명령을 내려주고, 저희에 대한 새 희망을 갖고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경제다”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 확신하며,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아쇠가 경제에 있다”며 첫 주제를 부동산 문제로 택한 배경을 부연했다.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김 위원장은 “선거철마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는 게 경제 문제”라고 공감했으며,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 재수한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다”며 성공을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개소식 참석 이후 곧바로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아파트 청약시장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계약자들의 고충을 듣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도 모색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스페이스X ‘크루드래건’〉

‘민간 유인 우주선 1호’ 발사 성공…‘우주여행 시대’ 성큼

女 물리학자 등 4명의 우주인 승선
NASA 노선승인後 첫 ISS 장기체류
관광 개발·영화 촬영 등 기대 고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민간 우주여행 시대의 막을 열었다. 인류 역사에서 민간 우주여행을 쫓 피우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크루드래건’ 1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크루-1’으로 명명된 이번 임무는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실전 무대로 평가된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워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는데, 당시는 시험 비행이었다. 스페이스X가 ISS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뒤 지구로 귀환하는 등 우주왕복 비행 정식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YT는 이에 대해 “미래에 민간인들이 마치 비행기 표를 끊듯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앞으로 민간 우주여행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주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NASA부터 미국과 ISS를 정

기적으로 오가는 노선의 승인을 받았다. 이날 발사는 NASA 승인 후 첫 임무다.

이번 임무에 투입된 우주인은 NASA 소속의 우주선 선장 마이크 스킨스와 조종사 빅터 글로버, 여성 물리학자 새넌 위커, 세 번째로 ISS에 오르게 되는 베테랑 일본인 우주비행사 노구치 소이치 등 4명이다. 이들은 6개월 동안 ISS에 머물면서 식물 재배 등 다양한 실험과 유지·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우주왕복선 퇴역으로 스페이스X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러시아 정부가 개발한 ‘소유스’ 우주선이 ISS의 유일한 우주왕복 수단이었다. 민간 우주여행사 역시 엄스페이스는 지난 3월 “개인 관광객 3명과 자사 우주비행사 1명 등 4명을 내년 말 ISS로 보내는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고 발표했다. 역시업은 지난주 “3명 예약이 모두 찼다”고 밝혔지만,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할리우드배우 톰 크루즈가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을 타고 가 ISS에서 영화를 촬영할 가능성도 있다. 브리덴스틴 국장은 5월 트위터에 “NASA는 톰 크루즈가 ISS에서 영화를 찍는 것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로 “NASA와 스페이스X에 축하를 보낸다”며 “이는 과학의 힘과 우리의 혁신, 독창성과 결단력이 이뤄낸 성취를 입증한 것이다. 모든 미국인, 일본 국민과 함께 우주비행사들의 성공적인 여행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 인근에서 사람들이 15일(현지시간)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 1호기를 탑재하고 날아가는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의 궤적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스페이스X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민간 기업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의 노선 승인을 받고 이날 정식 우주선 발사에 성공해 민간 우주여행 시대의 막을 열었다. 케이프커내버럴/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유통업체 무덤 된 日… 월마트도 백기

“유통구조 복잡” 퇴각 결정… 라쿠텐·사모펀드 등에 85% 지분 양도

일본에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글로벌 유통기업이 늘고 있다. 미국의 ‘유통 공룡’ 월마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월마트는 보유하고 있던 일본 유통체인 세이유의 지분 60%와 25%를 각각 미국 사모펀드 KRR와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매각액은 총 1725억 엔(약 1조8264억 원)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월마트는 지분 15%만을 보유하게 된다. 월마트는 현재 300개의 세이유 매장과 3만5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월마트는 2002년 세이유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본에 진출, 해외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일본 유통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됐다.

이후 일본에서 7년간 적자를 낸 후 2008년 세이유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변화를 꾀했지만 미국식 전략은 일본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1차 벤더와 2차 벤더를 따로 두는 등 수입에서 소매상으까지 넘어가는 구조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2년 전부터 월마트의 일본 철수설이 나돌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월마트가 매각 대상자를 찾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번 매각은 식료품 배달 시장에 참전한 라쿠텐이 2018년 월마트와 전자상거래 협력 제휴를 맺은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을 미국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KRR의 결정이 맞물리면서 통 큰 매각이 성사됐다.

FT는 “일본의 혼잡스러운 소매 유통사업은 경쟁이 심하기로 악명 높다”며 “몇몇 다른 외국 업체들은 발도 못 붙이고 떨어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테스코와 까르푸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는 2005년 일본 내 8개 매장을 접고 4년 만에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고, 월마트와 함께 세계 최대 유통업체로 불렸던 영국의 테스코는 2011년

일본 내 점포 129곳을 모두 접었다.

월마트는 이번 일본 시장 철수에 앞서 지난달엔 영국 식료품 업체인 아스다 지분 대부분을 68억 달러(약 7조50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아르헨티나 소매 사업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수익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와 같은 고성장 시장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월마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식품과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3분기(8~10월)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월마트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디스 맥케나 월마트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18년간 이 사업의 자랑스러운 투자자로서 존재해왔다”며 “이제 새로운 지배구조 속에 회사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모더나 “코로나 백신, 94.5% 효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결과가 나왔다. 앞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에 이어 2번째로 90% 이상의 효능을 보인 것이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최종 임상 시험에 참여한 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률이 94.5%에 달했다고 밝혔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3상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중간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가 개발한 백신 후보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제약사들은 속속 코로나19 백신 면역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면역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은 이날 3만 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를 2회 접종하는 최종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사실상 미국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 해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험을 통해 두 번째 접종으로 백신 효과가 증대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1, 2차 접종 후 백신 효과 모두를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입증되면서 코로나19 종식 기대감도 크다.

정용욱 기자 dragon@

바이든에 출 선 ‘폭스뉴스’ 패썸 트럼프 측 ‘뉴스맥스’ 인수 추진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 공동의장인 토머스 히스 주니어가 케이블TV 방송국 ‘뉴스맥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히스 주니어가 폭스뉴스와 견줄 방송국을 만들려고 2년 가까이 시도한 끝에 트럼프에 우호적인 뉴스맥스를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WSJ는 “히스 주니어 측과 뉴스맥스의 협상이 진전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트럼프 측의 접근은 20년간 보수계 언론을 지배해온 폭스뉴스에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주요 방송사 중 유일한 보수 성향 매체로 평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막강한 시청률을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간판 앵커들 덕에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달라졌다. 민주당 인사들을 불러 인터뷰하거나 트럼프에 유리한 기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트럼프는 “지금과 2016년 대선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에게 폭스뉴스라고 답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대선 개표 당시 CNN과 뉴욕타임스(NYT)가 망설이는 사이에 폭스뉴스가 공화당의 텃밭인 애리조나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가장 먼저 예측한 것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폭스뉴스에서 대거 이탈해 뉴스맥스와 원아메리카뉴스(OAN)로 갈아탔다. 최혜림 기자 rog@

日, 3분기 GDP 연율 21.4% 깜짝반등

코로나 재확산에 낙관 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2분기에 전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 경제가 3분기에 급반등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급격한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내각부는 16일 오후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대비 5.0%, 연율 환산으로는 21.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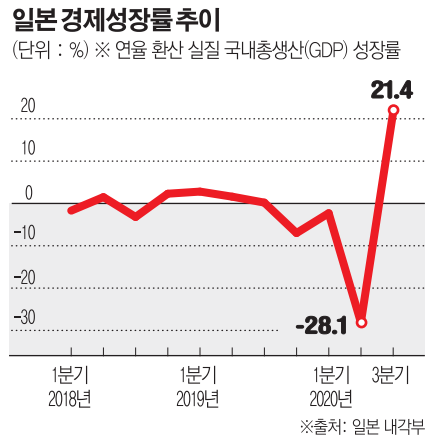
일본은 지난 2분기에 코로나19 여파로 GDP가 전 분기 대비 7.9%, 연율 환산으로는 28.1% 감소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3분기에는 4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회복한 것은 물론 196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투 트래블’ 같은 여행 지원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개인 소비가 전 분기 대비 4.7% 늘고, 수출도 7.0% 증가한 것이 대폭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2분기 부진에서 회복한 것에 불과해 진정한 성장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심지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경제 회복 속도도 더딘 편이다. 3분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점과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IHS마킷의 다구치 하루미 이코노미스트는 “고-투 트래블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조치가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우



려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내년 3월까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해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15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41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9420명으로 늘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은행聯 새 회장 ‘民 출신’ 부상... ‘官피아 논란’ 잠재우나

최종구·김용환 등 ‘官 출신’ 고사
‘民 출신’ 지주 대표·은행장 거론
회추위, 이번주 회장 후보군 압축

그동안 하마평만 무성했던 차기은행연합회장이 내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官) 출신 인사가 유력했으나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이 일면서 민간 출신 인사들이 새로운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2차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은행연합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확정한다. 지난 11일 열린 1차 회추위에서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0명의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KDB산업·IBK기업·SC제일·한국씨티·경남은행)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차기 연합회장 후보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사회는 회추위 역할도 맡는다.

2차 회추위에서 10여 명의 롱리스트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박진회
전 씨티은행장

확정하면 추후 회추위에서 후보군을 추려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확정한다. 이렇듯 숏리스트가 정해지면 은행연합회장은 22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 회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료 출신 인사 영입을 원했다. 하지만, 관료 출신 중 상당수가 관피아 논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직접 차기회장을 고사하면서 후보군이 자연스럽게 압축되는 모양새다. 1순위 후보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1차 회추위 직후 김태영 회장에게 정중히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과 13일에는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들이 자체 이탈하면서 관료 출신으로는 3선 의원 출신인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정무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은행 입장에서 최근 코로나19, 사모펀드 사태 등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교감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도 관료 출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금융권 협회장에 잇달아 관료 출신 인사들이 선임되면서 금융권에 ‘관료 독식’ 논란이 불면서 민간 출

신 협회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장에는 관료 출신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고,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의 차기 사장을 맡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다면 전형적인 ‘관피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관 출신 인사가 유력했지만, 최근 관피아 논란이 부각되면서 은행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민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롱리스트가 나오면 어느 정도 차기회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출신으로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박진회 전 씨티은행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김범근 기자 nova@

기업銀, 신분증 없어도 금융거래 ‘OK’

업계 첫 금융실명법 특례 적용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IBK기업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은 16일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증이 없어도 ‘i-ONE뱅크’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IBK 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 과정



서비스로 선정됐다.

신분증 없이도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은 크게 2단계다. 영업점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본인 인증을 요청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 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된다.

이후 고객이 이 번호를 스마트뱅킹 앱에 입력하면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완료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의적절한 서비스”라며 “혁신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롯데카드 로카’ UCC 영상 콘테스트

롯데카드가 업계 최초로 ‘세트 카드’ 시스템을 적용한 ‘로카(LOCA)’ 시리즈를 선보이고 총 1억 원의 상금을 주는 ‘왜이로카?(Why LOCA?)’ UCC 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세트 카드 시스템은 고객이 세트 카드 중 어떤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고객에게 두 카드 중 더 큰 혜택을 알아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범용 혜택 카드인 ‘로카카드’와 맞춤형 혜택 카드인 ‘로카포(LOCA for)’ 카드를 세트 카드로 발급받은 고객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카드별 실적 조건을 계산할 필요 없이 1장의 카드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로카 시리즈는 두 카드의 지난달 실적을 합산해주기 때문에 한 카드의 실적만 달성해도 두 카드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롯데카드는 로카 시리즈



소지 회원 대상으로 발급 월 포함해 총 5개월 간 전월 실적기준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할인받은 실적과 현금 서비스, 카드로 이용 금액은 지난달 실적에 포함된다.

콘테스트 세부사항은 롯데카드 홈페이지나 롯데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회계관리	기업연속관리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툴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팀빌딩, 도매인)

인생금융
전문가 삼성생명FC

Q

주부 10년 차

제가 컨설턴트가 된다면
뭘 해줄 수 있나요?

A

삼성생명이 2년간
지원해드릴게요!

삼성생명 FC, 지금 시작해보세요

* FC (Financial Consultant) 는
고객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으세요

컨설턴트를 처음 하셔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금 제공*

*회사기준 달성 시 지급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최대 13개월간 동행 매니저와
함께하는 코칭 프로그램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4개월 차 고객 관리 교육 - 7개월 차 상담
스킬 교육 - 13개월 차 시장 확대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보험부터 카드, 펀드까지
종합적인 금융 컨설팅 교육 제공



지원 상담 1588-3114

준법감시필 2020-1265호

삼성생명

SAMSUNG

한화시스템, 일본 물류법인 철수

‘한일관계 악화’에 코로나 덮쳐 진출 2년8개월 만에 청산 결정 ICT 중심 사업구조 개편 해석

한화시스템이 물류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법인을 2년 만에 청산한다.

지난해부터 한일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물류 사업이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자 발 빠르게 법인을 철수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16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에서 일본 물류법인인 ‘한화시스템 재팬(Hanwha Systems Japan Co. Ltd.)’을 청산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현지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시스템은 2018년 3월 일본에서 물류 BPO 사업을 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물류 BPO는 고객사의 공급망 물류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아웃소싱 서비스다. 이 사업은 물류비 검증·정산, 주문 및 재고관리, 물류시스템 운영 등 물류 관리 업무부터 물류 운영계획 수립, 물류 혁신과제 추

진 등 물류전략·기획업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시장에 진입한 지 2년 8개월에 불과한 일본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물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익성 역시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며 무역 규모도 감소했다. 수출 규제 이후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6년 만에 최저치인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일 수입 비중 역시 지난해 1분기 9.8%에서 4분기 9.0%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보였다.

실상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양국의 무역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한화시스템이 일본 무역 BPO 사업에 진출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린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물류 사업을 하던 법인으로, 수요 주체가 많이 없어져 사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청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 악화, 코로나19 발생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법인을 과감하게 청산하기로 한 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룹 차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기 위해 변화된 산업지형과 새로운 규칙이 지배할 사업전략과 선도적인 역량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화시스템 역시 사업의 미래 가능성을 계산하고 발 빠르게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방산, ICT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영국 ‘페이저 솔루션(Phasor Solutions Ltd.)’의 사업을 인수하며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본격화했다. 저궤도 위성 안테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항공우주 시스템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은 지구 상공을 떠도는 인공위성에서 5G·LTE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에어택시 선도기업인 오버에어(Overair, Inc.)에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에어택시’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전자 직원이 멕시코 레이노사에 위치한 TV 생산라인에서 LG 올레드 TV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블프’ 앞둔 LG 올레드 TV, 멕시코 공장 풀가동

전년 대비 생산량 30% 확대

LG전자가 멕시코 북동부 타마울리프스주 레이노사 지역에 있는 TV 생산라인을 풀(full)가동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으로 이어지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북미 시장의 TV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노사 공장의 TV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린 것이다. 레이노사 공장은 7월부터 주·야간 2부제 생산 체제를 도입하고 풀가동에 들어갔다. 시점도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빨라졌다. 레이노사 공장에서 생산된

TV는 전량 북미 시장에 공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침체했던 북미 시장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 유통업체들은 대규모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북미 시장에서 대형 올레드 TV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올 4분기 북미 시장에서 OLED TV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옴디아는 이

같은 프리미엄 TV 수요 증가에 힘입어 4분기 OLED TV의 글로벌 출하량이 100만 대를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올레드 TV는 미국 유력 소비자매체의 TV 종합평가에서 60인치 이상 대형 TV 가운데 최고 평점을 받고 있다. 매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TV’에도 수차례 꼽히고 있을 만큼 자타공인 최고 TV로 인정받고 있다. 또 최근 美 유력 IT 매체 리뷰닷컴은 2020년 최고의 테크 제품 23종을 선정하며 최고 TV 및 최고 게이밍 TV에 LG 올레드 TV를 선정하기도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구본준 고문, LG상사·하우시스·판토스 독립 작업 LG家 사실상 마지막 계열분리

재계 4위 순위 변동 없어

구본준(사진) LG그룹 고문이 LG상사와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이끌고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고문은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며, 고 구본무 LG회장의 동생이다. 구광모 LG회장이 2018년 취임하면서 계열 분리 시나리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계열분리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G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구 고문은 LG지주사인 ㈜LG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가치는 약 1조 원으로 평가된다. 구 고문이 이 지분을 활용해 LG상사와 LG하우시스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독립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LG상사는 지난해 LG여의도 트윈타워 지분을 ㈜LG에 팔고 LG광화문 빌딩으로 이전했다. 또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은 LG상사의 물류 자회사인 판토스 지분 19.9%도 매각하는 등 계열 분리 사전작업을 해왔다.

LG그룹은 장남이 그룹 경영을 이어받고, 동생들이 계열사를 분리해 나가는 ‘형제 독립 경영’ 체제 전동을 이어왔다.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의 첫째 동생 고 구철회 씨 자녀들은 1999년 LG화재(현 LIG)를 들고



계열분리했다. 구 창업주의 여섯 형제 중 넷째 구태회, 다섯째 구평회, 막내인 구두회 형제는 2003년 계열분리해 LS그룹을 설립했다.

2세대에서는 구인회 회장의 차남인 고 구자승 전 LG상사 사장의 자녀들이 2006년 LG패션(LF)을 분사해 독립했다. 구인회 회장의 3남 구자학 회장은 2000년 1월 LG유통 식품 서비스 부문을 독립시켜 아쉬움을 만들었다. 2004년에는 구인회 창업주의 동업자인 고 허만정 회장의 손자 허창수 당시 LG건설 회장이 GS홀딩스를 세워 정유·유통·건설 계열사를 들고 GS그룹으로 독립했다. 3세대에서는 구자경 회장의 차남인 구본능 회장이 희성금융, 국제전선, 한국에너지하드, 상농기업, 원광, 진광정기 등 6개사를 떼어 화성그룹으로 계열분리했다.

LG그룹은 계열분리에도 불구하고 재계 4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LG그룹의 회사수는 총 70개, 자산총액은 약 136조 9066억원 규모로 LG상사·LG하우시스와 판토스 등 이들 기업에 팔린 자회사만 계열분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60개 회사, 자산 131조 1993억원 정도로 큰 변화는 없다. 구본준 고문이 이끄는 LG상사 계열은 10개 회사, 자산 5조 7천 674억원 규모가 된다.

4세대 구광모 회장부터는 LG의 대규모 계열분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5대 매출처’ 화웨이 빠졌다

3분기까지 R&D 투자 역대 최대

삼성전자의 3분기 주요 5대 매출처에서 화웨이가 빠지고, 베스트바이가 재진입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여파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었지만 연구·개발(R&D) 비용과 고용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5대 매출처는 애플, 베스트바이, 도이치텔레콤, 홍콩테크트로닉스, 버라이즌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화웨이가 포함됐지만, 이번엔 빠졌다. 그 자리에 북미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가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9월 15일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이후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 향 수출 특별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북미 등을 중심으로 가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베스트바이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R&D 투자 비용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R&D에 15조 9000억 원을 투자해, 작년 같은 기간(15조 3000억 원)보다 6000억 원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9.1%를 기록했다. 국내 직원 수는 3분기 기준 10만 8998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3700명 증가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이노션, 무신사와 ‘공기 충전식’ 에어 패딩 개발

이노션이 공기를 이용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신개념 아우터 ‘에어(Air) 패딩’을 출시했다. 에어 패딩은 패션 플랫폼 무신사, 의류브랜드 ‘파라코즘’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보온성이 뛰어난 에어 패딩은 16일부터 22일까지 7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무신사의 할인 행사인 ‘아우터 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색상은 블랙, 그레이, 클리어블랙 등 3가지로 제공된다.

‘Fill Air Feel Air’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에어 패딩은 말 그대로 공기를 충전해 입는 패딩으로,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한다고 이노션 측은 설명했다. 보호복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이주영 교수 연



구실에서 2015년에 이미 공기의 보온성을 검증한 바 있고, 에어 패딩의 보온성을 기존 제품과 비교 실험한 논문도 올해 12월 나올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차, 개방형 혁신 스타트업 모집

현대자동차그룹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엑셀러레이터’에 참여할 신생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는 현대차그룹 소속 현업 팀이 직접 발제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협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혁신 기술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 및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업 팀들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프로젝트 내용을 발제하고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회사 간 경계를 넘어 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는 △데이터(9건) △사용자 경험(8건) △제어 기술(3건) △모빌리티(4건) △충전(4건) △

로보틱스(6건) △스마트팩토리(3건) △물류(4건) △헬스케어(3건) △재료(6건) 등 10가지 분야로 나눠 총 5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모집을 진행한다. 최종 선발돼 현업 팀과 협업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지원되며, 해당 스타트업은 제로원 엑셀러레이터의 지분 투자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다.

접수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는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초 발표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엔씨 ‘2조 클럽’ 눈앞… “AI·신사업 글로벌 확장”

‘리니지M’ 등 흥행 호조… 3분기 누적매출 1조8549억
‘트릭스터M’ ‘아이온2’ 등 신작 출시 주기 더 빨라질 것
AI 간편투자 증권업 추진… ‘유니버스’ 엔터 분야 도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형제의 흥행과 신작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 도전의 원동력을 마련했다. 올해 4분기 ‘트릭스터M’과 내년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게임 신작 외에 인공지능 신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연매출 이미 뛰어넘어= 엔씨소프트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17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52억 원으로 47%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525억 원을 기록해 34% 성장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매출이 471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북미·유럽 274억 원, 일본 139억 원, 대만 7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매출은 588억 원으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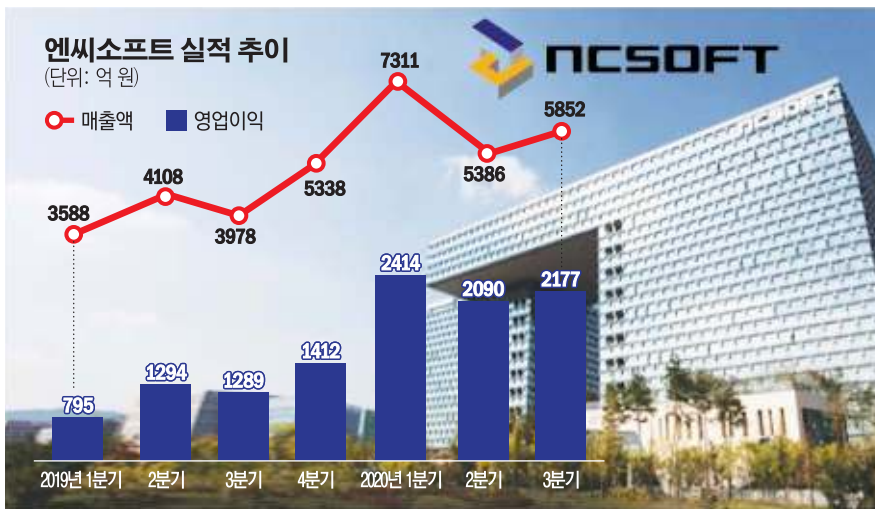
제품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매출이 3896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중 리니지

M이 2452억 원, 리니지2M 1445억 원을 차지한다. PC온라인 게임 매출은 리니지가 49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리니지 2 263억 원, 아이온 85억 원, 블레이드 & 소울 172억 원, 길드워2 188억 원 등이다.

이같은 실적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엔씨소프트는 올해 사상 첫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매출 1조7012억 원을 기록하며 2조 클럽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8549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성과를 뛰어넘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난해 말 출시한 주요 신작들이 성과를 내며 실적을 이끌고 있는 만큼 2조 달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신사업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시도 = 엔씨소프트는 내년 성장에 가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트



릭스터M’과 내년 1분기 ‘블레이드&소울 2’, 내년 하반기 ‘아이온2’와 ‘프로젝트TL’ 등 순차적으로 신작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신작들까지 포함되면 신작 출시 주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트릭스터M은 사전예약 개시 9일 만에 200만 명을 모으며 흥행 기대작으로 떠오른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날 진행한 2020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과거에는 회사의 게임 신작 출시 간격이 5년 정도

됐었는데 모바일 게임 시대로 진입하면서 출시 간격이 줄고 있다”며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많아 내년~내후년에는 출시 라인업이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신작 외에 인공지능 기술의 영역도 확대한다. 우선 금융과 엔터테인먼트를 우선 확장하며 이를 발판삼아 다양한 기회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AI센터와 NLP센터 두 곳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적용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발판삼아 올해에는 KB증권과 함께 인공지능 간편투자 증권사 출범을 추진하고, 디셈버엔컴퍼니자산운용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케이팝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주도로 진행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2일 유니버스를 공개하고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초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134개국에 동시 출시할 예정이며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아이즈원,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강다니엘, (여자)아이들 등이 합류를 밝혔으며 추가적인 아티스트는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유니버스에서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와 스트리밍 등 온·오프라인 팬덤 활동을 앱에 인증·기록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엔씨소프트 측은 “금융사업 분야에 진출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AI기술이 우리나라 최고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리바트, 가구 디자인의 고정관념 깬다

강렬한 원색·독창적 디자인
‘위트로’ 컬렉션 23종 출시
색상·소재·마감 전문적 연구
디자인팀 내년 상반기 신설



현대리바트가 가구 제품 디자인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예술 작품 기법을 활용한 ‘팝 캐주얼 가구’를 선보인데 이어, 이번엔 원색과 독창적 디자인을 강조한 제품을 새로 선보인다.

현대리바트는 강렬한 원색과 철제,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를 조합해 디자인을 차별화한 ‘위트로(WE-TRO·사진)’ 컬렉션을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트로 컬렉션은 ‘위트로 레드 에디션(13종)’과 ‘위트로 블랙 에디션(6종)’, ‘위트로 콤팩트 에디션(4종)’ 등으로, 침대·소파베드·책상·수납장 등 총 23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들은 주로 8~10평 크기의 원룸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 1~2인 가구를 겨냥한 게 특징이다. 침대에서 공부나 업무를 하거나, 집을 힐링의 공간으로 삼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위트로 컬렉션은 기존 국내 가구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는 의도로 만든 제품”이라며 “기획 초기 디자인한 콘셉트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2회 생산하는 시제품을 4회 이상 생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가 이처럼 디자인 차별화에 나서는 것은 주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리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데다, 국내 가구시장에 진출한 이탈리아 ‘까시나’, ‘폴리폼’ 등 해외 명품가구들이 매장을 확대하면서 높아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현대리바트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디자인의 핵심요소인 색상·소재·마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리바트 CMF 라이브러리(가칭)’도 신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디자이너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경기도 용인 공장에 위치한 샘플실과 시제품 품평화장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다면, 앞으로는 패션기업처럼 제품 개발에 있어 디자이너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제품 디자인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대형 가구 브랜드에서 처음하는 시도인 만큼, 제품 개발 비용을 기존보다 3~4배 늘리고 신제품에 대한 매출 목표도 없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한국시리즈 집콕 응원, U+ AR·VR로 실감나게” LG유플러스가 ‘U+프로야구’와 ‘U+VR’에서 KBO 한국시리즈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한국시리즈에 대해 △AR글래스 ‘U+리얼글래스’에서만 볼 수 있는 U+프로야구 특화 서비스 △경기장 ‘명당’ 자리에서 관람 가능한 VR Live 콘텐츠 △프로야구 팀 전 감독·선수와 함께하는 특별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네이버-KT ‘날씨 서비스 고도화’ MOU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네이버는 KT와 날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공기업 데이터 활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네이버는 날씨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상 전문 사업자와 협업체 고도화된 기상 및 미세먼지 예보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2017년부터 전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국가 측정 망 대비 5배 규모의 실외 공기 질 측정기를 설치해 생활밀착형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도화된 장비를 도입하는 등 데이터 품질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네이버는 날씨 서비스를 통해 KT의 정밀한 생활 밀착형 공기질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우선, 사용자들의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날씨 정보에 대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AI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유봉석(왼쪽)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과 김준근 KT 전무가 협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버는 사용자들이 생활과 관련해 더욱 정밀한 생활 밀착형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날씨는 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로, 네이버는 KT와의 협업을 통해 공기질을 비롯,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화된 데이터들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근 KT 전무는 “앞으로 양사의 AI와 빅데이터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업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KT는 앞으로 공기 질 외에도 수질, 악취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를 측정 및 수집하고 분석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코웨이, 브랜드고객만족도 4년 연속 1위

정수기·비데 부문… ‘아이콘 정수기’ 등 혁신기술 적용

코웨이가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한 ‘2020 제6회 브랜드고객만족도(BCSI)’ 조사에서 4년 연속 정수기·비데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브랜드고객만족도 대상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및 재이용 의향, 품질 만족도, 가격 만족도 등을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해 선정한다. 이번 브랜드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됐으며 전국에서 1419명의 소비자가 참여했다.

코웨이는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지난 10월 출시된 ‘코웨이 아이콘 정수

기(사진)’는 혁신 냉각 기술을 적용해 제품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출시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저소음 제품임을 인정받아 정수기 최초로 영국 소음저감협회 국제인증마크인 ‘콰이어트(Quiet) 마크’를 획득했다.

방문관리서비스와 자가관리서비스 중 원하는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했다.

‘코웨이 스타일케어 리모트 비데’는 무선 리모컨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몸 컨디션에 최적화된 맞춤 세정 코스로 체계적으로 케어해주며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선보인 ‘보이는 상담 서비스’는 고객들의 만족



도가 높다. 콜센터 상담사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제품 상태를 바로 살펴볼 수 있어서 간단한 문제는 고객이 직접 해결할 방안을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증상을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심병희 코웨이 마케팅실장은 “이번 4년 연속 브랜드고객만족도 1위 수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코웨이 정수기와 비데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옷·가전에 유럽 명품까지… 올 해외직구 ‘4조 돌파’

3분기 9581억 구매 13.8% 늘어
美 블프·英 박싱데이 몰린 4분기
거래 급증 분기 첫 1조 돌파 유력

아마존-11번가 연합 국내 진출
내년 해외직구 시장 더 커질 듯

1년새 더 커졌다. 하늘길이 막히며 해외여행 대신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해외 직구 시장의 팽창세가 거침 없다. 특히 수입 명품의 본고장인 유럽이 새로운 직구 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직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쿠팡과 SSG닷컴을 비롯해 해외 명품 이커머스까지 가세하며 올해 거래액 4조 원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 여기에 아마존이 11번가와 협력하게 될 내년에는 거래액 5조 원을 넘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 직구 거래액 4조 원 무난할듯=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해외 직접 구매액은 2조85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369억 원에 비해

8.2% 신장했다. 분기별로는 올 1분기 9793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2% 뛰었고, 2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외 수송 등의 문제로 2.8% 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3분기에는 여름 휴가 대신 직구가 급증해서 13.8% 치솟은 9581억 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영국 박싱데이 등이 몰려 해외 직구 성수기로 분류되는 4분기에는 상승률이 더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4분기에는 거래액 9987억 원을 기록해 올해는 분기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돌파가 유력하다. 이 경우 연간 합산 누계는 자연스럽게 4조 원대에 이른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4분기는 크리스마스 성수기에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수요까지 있다”면서 “해외여행 대신 소비하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면서 직구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해외직구 대세 시장은 유럽 ‘명품’=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유럽 시장 거래액의 신장세다. 해외여행 대신 고가 제품의 온라인 쇼핑이 자리잡고, 해외 패션 플랫폼은 물론 국내 업체를 통한 병행 수입



몰테일 스페인 물류센터.

사진제공 코리아센터

도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분기와 2분기 유럽 직구액은 전년대비 각각 29%, 4%로 전체 직구액보다 2~3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역시 유럽 직구액은 25.2% 늘어 전체 직구 증감률의 2배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해외 배송대행지 사업을 담당하는 몰테일은 2월 영국 물류센터 오픈과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 물류센터의 확장 이전에 이어 이달에는 총면적 4959m²(1500평 규모)인 스페인 물류센터를 오픈하고, 이태리 MD 지점도 함께 오픈했다. 명품 브랜드가 많은 유럽 직구 시장 공략을 위해서다.

블프 수요에 맞춰 이커머스들의 마케팅 속도도 내고 있다. SSG닷컴은 ‘썩 블랙 쇼핑 페스타’의 첫 번째 행사에서 해외직구 상품을 최대 85% 할인 판매한다. 여기에는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과 프리미엄 아울렛, ‘S.I.VILLAGE(에스아이빌리지)’ 등도 참여한다. 명품 전문 이커머스 머스트잇과 트렌비도 최대 87~90% 할인하는 ‘블랙위크’와 ‘블프 클리어런스’ 프로모션을 연다.

◇아마존, 11번가 손잡고 국내 진출=내년에는 잘 나가던 직구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가 뛰어들 가세하며 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

마존은 11번가의 모회사인 SK텔레콤과 커머스 사업 혁신을 위해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11번가를 ‘글로벌 유통허브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11번가는 국내 셀러들의 해외 진출의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11번가를 통해 아마존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형태의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마존에 입점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국내 물류센터에 보관한 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 방식이다. 이 경우 해외직구의 배송 기간을 단축하고 배송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쇼핑하듯이 아마존 쇼핑이 가능해지면 해외 직구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쇼핑 행태가 글로벌화되면서 연간 직구 거래액 5조 원대도 머지 않았다”고 봤다.

해외 직구 경쟁력을 갖추며 네이버쇼핑(12%)과 쿠팡(10%), 이베이코리아(10%)에 이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6%로 4위 권에 머무르는 11번가의 영향력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주현 기자 jooh@

백화점 매장이 화면 안에 그대로 쏙

‘방구석 쇼핑’의 진화

폴스미스·어그 등 4개 매장
3D 공간 스캐닝 기술 활용
상세정보 확인 후 구매 가능



신세계 본점 폴스미스 매장을 구현한 3D 가상 매장. 사진제공 신세계인터내셔널

링크에 접속하니 12평 규모의 서울의 한 패션숍이 손안에 쏙 들어온다. 손가락 하나로 매장을 둘러보고, 확대하거나 뒤집으면 구석구석 살필 수 있다. 옷가지, 액세서리 등 위에 떠있는 동그라미를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바로 살 수 있도록 웹 쇼핑물로 연결된다. 그야말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구석 쇼핑’이다. 최근 한 패션업체가 도입한 ‘가상 매장’ 이야기다.

기술과 패션이 만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패션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가상현실(VR) 기술로 실제 매장을 통째로 모바일로 옮기는 등 패션업계에서도 AI·VR 기술 열풍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트렌드에 힘입어 기술과 패션의 만남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최근 폴스미스(신세계 본점 매장), 어그(신세계 광주점 매장), 리스(신세계 강남점 매장), 맨온더본(신세계 강남점 매장) 등 4개 브랜드에 대해 3D 공간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가상매장을 오픈했다. 한 매장당 10개 품목에 대해 상세정보 확인과 구매를 할 수 있는 자사몰로 이동하는 ‘포인트’를 설정했다.

코오롱FnC의 ‘럭키마르쉐’는 360도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매장 ‘럭키고 스마일 마켓’을 오픈했다.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있는 럭키마르쉐 매장을 구현한 곳으로 코오롱FnC 공식 온라인몰인 코오롱몰에서 접속할 수 있다. 럭키마르쉐 코엑스몰점에 구비된 전체 상품의 70%를 가상 매장에

서 구매할 수 있다.

삼성물산의 SSF샵도 최근 AI 기술을 개선해 맞춤형 패션 서비스를 강화했다. 과거 즐겨보거나 샀던 상품과 유사한 사례를 AI가 조합해 고객들에게 맞춤형으로 관련 상품을 리스트업해 준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제 매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3D 가상매장 개장 후 2주 간(10월12~25일) 4개 브랜드의 3D 매장에 노출된 38개 제품의 온라인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SSF샵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매출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20% 가까이 올랐고, 고객 유입률도 40% 정도 늘었다.

업계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드라이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가상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브랜드의 콘텐츠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타겟팅이 중요해지면서 사람이 분류하지 못하던 걸 기술이 분류해내는 ‘백인백색’의 시대”라면서 “전통 매장들도 물류센터를 강화하거나 무인점포로 바꾸는 등 결국에는 기술을 접목한 매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50년 전엔 100원…



50배나 올랐네

한국물가정보 ‘종합물가 총람’
소고기 133배·담배 83배 경충

“1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면 행복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한 번쯤 코웃음을 쳤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한 그릇에 5000원 내외인 짜장면이 100원이었다는 사실이 선뜻 외당지 않거나 반세기만에 물가가 50배나 올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뉘두리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짜장면보다 더 가격이 폭등한 먹거리가 수도룩하다.

16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매월 발간하는 ‘종합물가 총람’ 11월호에 1970년부터 올해까지 50년간 주요 품목별

물가 변동 상황을 조사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먹거리 가운데 소고기 가격 인상폭이 가장 컸다.

소고기는 1970년대 500g 기준 375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만원으로 133배나 가격이 폭등했다. 담배, 소주, 쌀 등도 가격 인상폭이 큰 품목이었다. 담배는 단종된 브랜드가 많지만 과거 판매량이 높은 브랜드를 기준으로 할 때 1970년대 20개들이 한 갑이 60원이었지만 최근에는 4500원에서 5000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반세기 동안 75배에서 83배까지 판매가가 경충 편 셈이다.

주식인 쌀 가격 인상폭도 만만치 않다. 40kg 기준 2880원이던 쌀 가격은 올들어 9만6200원 선의 평균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인상폭은 33배다. 품종이나 농법에 따

른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10만원을 훌쩍 넘는 브랜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먹거리 가운데서는 비교적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닭고기 가격은 2kg 기준 420원에서 7000원으로 16.7배 오르는 데 그쳤다.

소주와 맥주 가격도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맥주의 가격은 먹거리 가운데 가장 적은 인상을 보였다. 맥주는 50ml 병제품 기준 1410원으로 50년 전 가격인 175원 대비 8배가 인상돼 주요 먹거리 가운데 인상이 가장 낮았다. 소주(360ml 기준) 1병은 1970년 65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1000원을 넘어서 후 올해는 1260원으로 올라 20배 가량 가격이 비싸졌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마트 ‘황금향 무한담기’

이마트가 재미와 가격 모두 잡은 ‘제철 황금향 무한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마트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친환경 봉투’에 고객이 직접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가는 황금향 무한담기 행사를 실시한다. 한 봉지당 가격은 9980원이다. 황금향은 9월에서 12월까지 수확되는 만감류로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배하여 만들어진 ‘베니마돈나’ 품종이다. 이번 무한담기 행사에서 황금향을 봉지에 가득 채우면 최대 2.5kg(10개 내외)까지 담을 수 있으며, 기존 판매가 1.5kg(박스당 1만1900원)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빙그레우스’ 굿즈 출시

‘빙그레우스’ 굿즈가 마침내 출시됐다.

16일 빙그레는 빙그레우스의 왕위 즉위 기념으로 굿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나나맛우유 왕관을 모티프로 한 세안밴드(9900원)와, 무릎담요(1만4900원), 극세사 실내용(1만1900원), 한정수량으로 출시한 빙그레우스 원통형 쿠션(5만4900



원)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집콕 3종세트인 세안밴드, 무릎담요, 실내용은 2만9900원에 판매

된다. 구매조건에 따라 빙그레우스 스티커와 포토 카드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빙그레우스 굿즈는 16일부터 카카오톡 커머

스로 살 수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빙그레우스 굿즈 출시 요구가 빗발치면서 다양한 굿즈 제품에 대한 기획하던 중 겨울철과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더 실용적인 제품을 처음으로 내놓게 됐다”라며 “이번 굿즈 판매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추가 굿즈 개발 등 빙그레우스의 세계관을 지속해서 넓혀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Together.

고맙습니다. 희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한 하보리 떡방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으로 같이가게'는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난생처음 시작해본 온라인 판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감사함과 더불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매출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셨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온라인 판매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소상공인과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 참여자 이정인 드림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용산떡방앗간, 케이푸드바이오, 오!은하수공방, 부각마을, 제이에로스, 119레오, 동동, 도산도방, 지평도예, 허브앤조이, 기운찬, 덕포식육점, 감자이모, 한터식품, 한방곰뱅이한글, 하워킷커피랩, 하보리떡방, 제이엠그린, 아리아리떡사랑, 세미락, 모양맛김, 간식여왕, 강화까까, 고후나비, 굴다리식품, 한우돌곰창, 한가람, 시장기름집, 유화컴퍼니, 메밀꽃이일다, 모이앤피, 버드윌리엄, 어반파머, 와이에이치디랩, 청년바른식, HIT, 진한자flower, 초아틱, 프롬유, 라마당, 청산제과, 자연데코, 오르리어, 디모먼트, 대광수산맛김, 금메달, 해마루팜, 토미153, 달콤공장, 투테일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마켓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입점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 1강_온라인 진출 사전 준비편
- 2강_상품선정 및 촬영 편
- 3강_운영 및 관리 편

* 신한금융그룹 유튜브 또는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가이드 영상을 만나보세요



2년9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피 '3000시대' 열리나

49.16P 오른 2543.03... 바이든·백신·경기회복 겹치세
코스피 기업 성장세 지속, 내년 상반기 순익 최대치 전망
“반도체·화학·운송·바이오·IT... 가치주·대형주 등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던 코스피가 단숨에 2540선에 올라섰다.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 이후 세계 경제가 'V'자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다수 전문가는 올 연말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서면 내년에는 3000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지수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반도체를 필두로, 전기·전자(IT) 업종과 대형주의 강세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19나 G2(미국·중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고배당주,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그린뉴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코스피 3000시대 열리나=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6포인트

(1.97%) 오른 2543.03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018년 2월 1일(2,568.54) 이후 2년 9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증권가는 내년 국내 주식시장을 장밋망으로 본다. 삼성증권은 2100~2850을 예상했고, 메리츠증권은 2250~2800, 신한금융투자는 2000~2750을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과 KB증권은 목표치를 각각 2700과 2750으로 잡았다. SK증권과 흥국증권은 각각 2900, 3000을 제시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수출이 살아나고, 국내 증시의 주축인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기업 이익 성장세가 펼쳐질 것이라 전망이 주된 근거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코스피 당기순이익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는 125조5284억원으로, 올해 추정치(86조323억원)에 비해 39조원 이상(4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까지



1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9.16포인트(1.97%) 오른 2543.03을 나타내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이란 악재와 백신 개발이란 호재가 돌아가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악재가 강하면 견고한 하방 지지력, 호재가 강하면 직전 고점 도달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제조업 전반적으로 깜짝 실적이 강화됐는데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며 “내년 상반기 코스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연간 순이익은 132조~140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져 밸류에이션 매력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KB증권 하인환 연구원은 “미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 둔화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 감소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8월까지 코스피보다 미국 증시의 S&P500이나 나스닥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9월부터는 코스피가 앞지르고 있으며 환율을 고려했을 때 실제 차이는 더 클 것”이라고 설

명했다.

개인들도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6조4931억 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놓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대기성 자금을 의미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17조1795억원에 달한다.

◇반도체, 상승장 이끌 주도주 될까=증권사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한 유망투자처는 가치주, 대형주 등이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백신 기대감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은 당분간 민감주 중심의 가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며 “반도체, 화학, 운송 등 경기 관련 업종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돼 증시에선 경기민감주와 기술주간의 순환에 흐름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펀다멘털(기초체력) 측면에서 성장주의 매력에 여전히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순이익 실적 기여도와 이익전망 추이를 보면 여전히 성장주 우위”라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ljh@

삼성전자 6만6300원 ‘역대 최고가’

외인 매수세 힘입어 4.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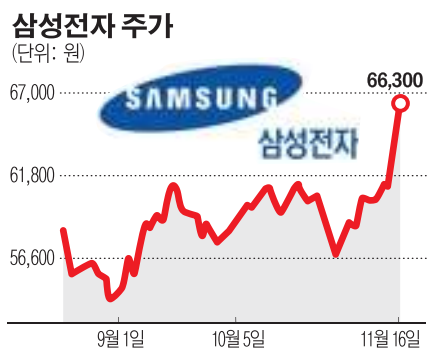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5%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16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3100원(4.91%) 오른 6만63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3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종가 6만3200원)를 다시 갈아 치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서만 17.1% 뛰었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94조6000억 원에 달하며 사상 처음 4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565만주를 사들이는 등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는 총 3391만주를 사들였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따른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 확



대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순이익률(ROE) 개선을 통한 재평가가 임박했다”며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18%가량 하락하겠지만,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D램 업사이클과 함께 실적이 구조적 개선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인아 기자 ljh@

금리 상승에 은행주 ‘신바람’

이달 들어 최대 14% 급등
‘배당 확대’ 기대감도 한몫

이익 상승에도 저평가를 받았던 은행주들이 최근 금리상승과 배당확대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세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리라 전망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표 은행주인 KB금융(8.81%), 신한지주(4.57%), 하나금융지주(13.18%), 우리금융지주(7.15%), JB금융지주(13.91%), DGB금융지주(14.56%), BNK금융지주(5.61%), 기업은행(8.41%) 등은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간 은행주들은 각종 우려 속에서도 실적은 매년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으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은행업종지수는 3월 저점 대비 55.99%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PBR 0.35배, PER 4.8배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은행주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원화 강세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수익의 핵심인 순이자마진(NIM)이 확대돼 은행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양호한 실적과 연말 배당기대감도 은행주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금융지주사 연결 순이익은 우려보다는 양호한 4%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높아진 자본비율과 현저히 낮은 주가 수준으로 인해 은행주들의 평균 예상 배당수익률은 약 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기준 금융지주사 전체 그룹 연결 보통주자본비율은 11.14%로 2분기 10.47%대비 약 67bp 상승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中企 “내부회계관리, 인력도 돈도 없다”

“회계법인 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기업들은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상장사 재무회계 담당 임원 A씨)

회계개혁의 목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두고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회계 법인 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전문인력을 뽑아 쓸 여력도 안 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에 맡기면 끝이지만 내부회계관리는 다르다. 예컨대 영업이나 구매부 직원들이 올린 매출전표와 자금 지출 내용을 내부통제 담당 부서가 일일이 영수증, 은행 거래 명세 등과 대조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신뢰부감사법 시행 전에 ‘검토’ 단계이던 것이 강화된 것이다.

16일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없고, 감사하는 회계법인에는 전문가가 없다”면서 “회계법인 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기

시스템 구축에 평균 2.8억
회계법인 간 연동도 안돼
2년 후 전면 도입 ‘골머리’

업은 혼란스러운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기업이 적용해보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평균 2억 8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문제는 용역을 주고 시스템을 구축해나도 다른 회계법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내년을 목표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신뢰감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초 자산 5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40여 개사가 추가된 데 이어 1년여 뒤인 2022년부터는 1000억 원 이상 기업, 2023년엔 모든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코스닥 기업은 내부회계관리 항목에서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다.

중소기업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가장 큰 걱정은 내부회계관리 능력을 키울만한 능력도, 여력도 안 된다는 점이다. 유수의 인재를 보유한 네이버 같은 대기업도 현재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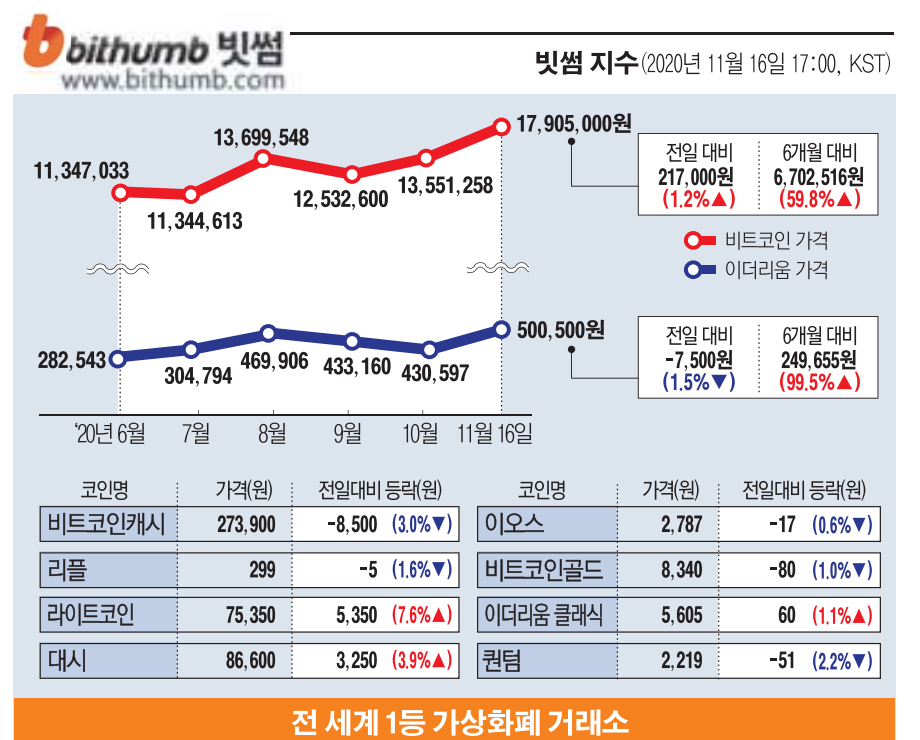
알감이 늘어 좋아해야 할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도 답답지 않아 한다. 기피 업무로 꼽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네이버란 기업의 이름값이 끌리지만, 지금 들어가면 거의 초행길이라 처음부터 길을 다 닦아야 한다”면서 “모든 일을 떠안게 될 게 자명하고, 또 내부회계관리 전문인력으로 경력을 쌓는 게 다음 이직에 좋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시행도 하지 않고, 법을 고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회계관계자는 “작년부터 주요 감사인들이 모인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슈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면서 “벌써 1000억 원 미만 기업 면제를 이야기하는 건 이르다”고 전했다. 손엄지 기자 eoml@

한국투자, 3분기 순익 2589억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누적 당기순이익 420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3분기(7월~9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6% 증가한 2589억 원에 달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영업수익)은 46% 증가한 12조 170억 원, 영업이익은 27.8% 감소한 4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지난 1분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침체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 보유 자산의 평가손실이 대부분 회복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3분기에도 시장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며 “비대면 채널 서비스 강화와 해외주식 활성화를 통해 위탁매매(BK) 부문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ljh@



몸값 오르는 이촌동...땅값 3.3㎡ 2억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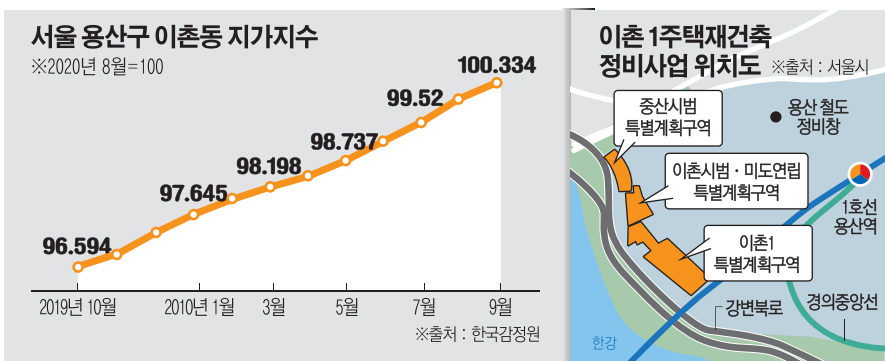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 주택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시장 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지만 개발 기대감에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몸값이 경총 뛰고 있다.

이촌동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부 이촌동 한 다세대주택은 지난달 17일 7억 8100만 원에 매매됐다. 이 집에 딸린 대지 지분이 13.2㎡인 점을 생각하면 3.3㎡당 1억 9495만 원(땅값 기준)에 팔린 셈이다. 땅값으로만 보면 1971년 지은 이촌동 낡은 빌라가 이태원동이나 한남동에 있는 웬만한 고급 연립주택보다 비싸게 팔렸다.

이유는 이 빌라가 한강변 노른자 위 재건축 구역인 이촌동 제1구역에 속해 있어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이촌1구역에선 재건축을 통해 875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 한다.

여기에 주변 대형 개발사업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이천1구역과 맞닿아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역 정비장 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계획대로면 51만㎡ 대규모 부지에 2026년까지 주택 1만 가구와 업무·상업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8월엔 삼각지에 있던 주한미군 캠프 킴 부지도 3100가구 규모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강대로를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면 이촌동도 그 후광을 기대할 만하다.

2000년대 중후반 용산역 역세권에서 국
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했을 때도 상황이
비슷했다. 용산역과 가까운 이촌2동(서부
이촌동) 부동산 가격이 지분 3.3㎡당 6000



시장과열 우려 토지거래허가 묶였지만
'규제 빗몸' 소형주택 가격 크게 올라
땅값 한남동 고급빌라보다 비싸
대림·중산시범 등 주변단지도 쑥쑥

만~7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넘어섰다. 서부이촌동은 부촌으로 유명한 이촌1동(동부이촌동)에 비해 소외돼 있었기에 개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2013년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도로 내려갔다.

용산역 정비장 등 개발사업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을 우려한 국토부는 5월 말 이촌1구역을 포함한 용산역 주변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이들 구역에선 주거지역에선 18㎡,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선 각각 20㎡, 10㎡가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주택을 취득할 땐 최소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그 사이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 빈틈을 노린다. 지분이 기존면적 이하인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거저 의무도 없고 임대·처분도 자유롭다. 이촌1구역만 해도 노후 주택이 많아 '모데크'(개발을 노리고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다. 올해 이촌동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주택 22가구 가운데 19가구가 대지지분 18㎡ 이하인 건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분 18㎡가 넘는 주택은 3.3㎡당 매매가격이 1억 원을 밑돈다.

이촌동 일대 집값 상승세는 주변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감지된다. 이촌동 대림아파

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5억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금은 16억5000만 원까지 호가한다.

중산시범아파트도 전용 59㎡형 기준 시
세가 9억 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이 아파
트는 전체 228가구 가운데 전용 39㎡형
24가구를 뺀 204가구가 토지거래 허가 대
상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자율롭지 못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호가가 뛰는 건 용산
개발 후광이 여전한 데다 이 아파트가 공
공재건축(LH 등 공기업)을 재건축 시행자
로 참여시키고 새로 지어지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을 추진하면서 사
업성 개선 기대감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촌동 G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소형 주택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용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허가 대상은 거래 절차도 복잡해서 매매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 임대차법後 ‘양극화’

상위 10% 오르고 하위 90% 내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의 양극화가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 대가격 상승이 10%의 평균보다 올라간 반면, 나머지 하위 90%는 소폭 내려가면서 월세값 차이가 더 벌어졌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금 제외)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4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인 1~7월 평균 월세 215만3000원에서 25만 원 올랐단 가격이다.

이 기간 하위 90%는 개정 임대법 시행 이전 62만2000원에서 시행 이후 58만3000원으로 3만9000원 낮아졌다. 이에 월세 상위 10%와 하위 90%의 평균가격 차이는 시행 이전 3.4배에서 이후 4.12배로 더 벌어졌다. 올해 월세 상위 10%의 평균 보증금은 2억6127만 원으로 조사됐다. 월세 하위 90%의 평균 보증금은 1억7423만 원으로 8704만 원 차이를 보였다. 이정필 기자 roman@

“재건축 서두르자” 개포 6·7단지도 속도

28일 조합설립 창립 총회 개최
일몰제·2년 실거주 규제 영향
개포동 일대 집값·분양권 들쭉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2년 실거주 의무'도 영향을 미쳤다.

개포주공 6·7단지까지 재건축 대열에 본격 합류하면서 개포동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파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포동 일대는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에 들어가거나 완료되면서 최근 강남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아니힐즈' 전용면적 84.36㎡형은 지난달 28억9000만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 거래다. 불과 한달 전 27억 원에 팔렸던 이 단지의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30억 원이다. 아파트 분양권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자이개포'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64㎡형 분양권이 지난 8월 30억3699만 원에 실거래됐다.

개포동 T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
주공 6·7단지는 재건축 후 가구수만 3000
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아파트로 거들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PART2. 앞장들부 환경용어가이드로 보는 환경 이슈
PART3. 친환경 오답노트 제대로 해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업사이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의 미학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일면 경제가 보인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다들 뉴질랜드로 향할까? 마케 양천구를 공판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해설

'저녁 7시의 인구 중 제1의 유일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취미인 남자 조동성 이사장의 프리타임

나조차도 감동 못할 가사,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진우 작사가

더불어 숲
여디서든 휘돌리지 않으면
거기가 도솔천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민박이나 편전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를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회장산도담센터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가이이 편전을 짓겠다고 기세를 돋우던 남편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그녀는 삶의와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정말? 편전 사업이 백 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기적'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던 고한18리 골목에 돌았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텔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잘 알 화단을 단장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임사-임직 돌아보기

알고 없는 거려와 화가,
뱅크사
"15억 원짜리 그림이
잡려나간 사건"

심삼오오 50+ 커뮤니티

이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 맘

자주리 천도 송출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채탄생한다. 그렇게 한 맘 한 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맘'
커뮤니티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86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秋 “尹 쌈짓돈 50억” 연일 맹공

‘윤석열 때리기’ SNS 설전 빈축
한동수 검찰부장도 이의제기
법조계 “감찰은 입 무거워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나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검찰부장까지 SNS를 통해 공세에 가담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 94억 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상환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특활비 정차 지금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카드를 꺼내 드는 등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편

파, 과잉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변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도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검찰부장은 전날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검찰청법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자신의 이의제기가 묵살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검찰부장은 “그 직후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SNS를 통해 “검찰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

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며 “감찰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외압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부장이 법에서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간부급 현직 검사는 “해당 조항은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단독관청으로서 검사의 수사·기소 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결정권자인 검찰 사무에서 검찰부장 등은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검찰청법 제7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의 첫 재판은 20일 열린다.

정수현 기자 int1000@



광화문광장 이렇게 바뀔다 서울시가 16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기자설명회를 열어 광장 동측도로 확장 및 정비를 시작으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화문광장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

“월성원전, 정책 아닌 법 위반 여부 수사”

檢 “편파 수사” 여권 비판 반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관여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까지 평가하려 한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며 “상상력과 창의성의

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놔다.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된 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박기영 기자 pgy@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캐너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국산차 名家’ 도전과 감동의 반세기를 만나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글로벌 고급차 메이커들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앞세워 ‘헤리티지(Heritage)’를 강조한다.

낮간지러운 이름 ‘헤리티지’는 ‘유산’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선다. 자동차 선진국은 차 제조사의 역사를 하나의 ‘사회적 유산’으로 받아들인다.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독일 고급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는 1세기를 넘어선 그들의 역사를 앞세워 헤리티지를 강조한다. 차를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를 함께 파는 방식이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BMW와 아우디 역시 이 같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나아가 대중차 브랜드인 일본의 혼다 역시 모터사이클에서 시작한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의 ‘꿈(Dream)’을 헤리티지로 내세운다.

이렇게도 대한민국 자동차는 짧은 역사 탓에 그들처럼 문화유산으로 브랜드 가치를 강조하지 못했다. 남들이 먼저 만든 자동차를 베껴 만들기에 급급했던 탓이다.

그러나 한국차도 본격적으로 헤리티지를 쌓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반세기 역사를 준비 중인 현대차다.

이제 반세기 역사를 향해 달리고 있는 현대차는 “부족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의 과거를 발판삼아 오늘을 재조명하고 있다.

◇창립 40주년 맞아 헤리티지 앞세워= 2017년, 창립 40주년을 맞았던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브랜드 유산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헤리티지 라이브(Heritage Live)’를 선보였다.

1967년 창사 이래 출시한 역대 차량은 물론, 비약적 성장의 기반이 된 독자개발 파워트레인, 모터스포츠 참가 역사 등 풍부한 헤리티지를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재조명했다.

현대차를 대표하는, 브랜드 박물관 역할을 해온 모터스튜디오 고양(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그들의 지난 40여 년 역사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현대 헤리티지 워크’ 행사장 전경.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2017년 국내車 제조사 첫 ‘브랜드 유산’ 주제 토크 콘서트 독자개발 파워트레인·모터스포츠 참가 등 헤리티지 재조명 포니·갤로퍼 등 ‘추억의 명차’ 전시·시승…“고객 경험 확대”

토대로 고객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 전략은 현대차 고객경험본부 아래 브랜드 전략팀이 추진했다. 팀원들이 자동차 마니아들로 뿔뿔 뿜친 조직이다.

헤리티지 토크쇼는 지난 시간 동안 축적해온 현대차만의 고유한 유무형 유산을 전시하고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함께 진행된다.

수십 년을 앞서 출발한 경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현대차만의 기술력과 고유 스토리 등 독창적인 가치를 전달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 기획됐다.

토크 콘서트는 매회 특정한 주제를 정해 이와 관련한 현대차의 역사와 비전 등에 대해 고객과 소통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자동차 칼럼니스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현대차 매니저 등이 콘서트에 참가한다.

지난해에는 전주 한옥마을에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기도 했다.

1980년대 말 영화관 콘셉트의 팝업 스토어 ‘현대극장’을 오픈하고 이 앞에 올드카를 전시했다.

고객과 함께 지난 시간을 추억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다. 클래식카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 체험 콘텐츠도 마련했다. 4050 세대에게는 향수를, 2030 세대에게는 색다른 브랜드 체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행사는 이달까지 8회차를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와 첫 SUV인 ‘갤로퍼’를 시작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까지 현대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상설 시승 프로그램으로 확대=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해 신뢰도를 쌓기 시작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전시된 현대차 첫 SUV 갤로퍼(위). 자동차 모양의 나무 모형에 담긴 시승차 키(아래).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는 본격적으로 고객이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승 이벤트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 헤리티지 시승 프로그램 및 특별 전시다.

상설 시승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헤리티

지 드라이브(Heritage Drive)’는 포니2세단과 픽업, 그랜저(1세대), 스쿠프, 갤로퍼 등 과거 현대차를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승은 고양시 도심을 중심으로 약 7km 구간에서 이뤄진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 모델 소개와 브랜드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를 포함해 시승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

시승 예약을 원하는 고객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공식 홈페이지 내 테마 시승 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물론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 아직 고객이 직접 운전하는 대신, 동승 체험을 제공한다. 다만 지난달 ‘현대 헤리티지 워크(‘Hyundai Heritage’ week)’를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현대 헤리티지 시승 프로그램과 특별 전시를 통해, 고객분들께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현대자동차 도전의 헤리티지를 전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대 모터스튜디오 통해 헤리티지 시승 차량 확충 등 다양한 고객 경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ior@

다시 타보니 스쿠프

국산차 첫 2도어 쿠페… 그때 그시절 젊은이들의 드림카

3스포크 운전대·짧고 뭉툭한 변속기 ‘스포츠카 감성’ 물씬 4기통 12밸브 엔진·제로백 10초 등 ‘최초 타이틀’ 수두룩

스쿠프(Scoupe)는 현대차가 1990년 내놓은 2도어 쿠페다.

양산을 앞두고 도쿄모터쇼에 깜짝 공개한 콘셉트카는 ‘엑셀 SLC’였다. 민망하게도 SLC(Sports Looking Car)는 “스포츠카처럼 보인다”를 의미했다. 스스로 “스포츠카는 아닌데…”를 고백한 셈이다.

다행히 양산형은 사정이 달랐다. 차명도 스포츠 쿠페를 상징하며 ‘스쿠프’로 정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엑셀과 거리를 두겠다는 전략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뒤 도어가 없는 세단형 쿠페는 적잖은 충격이기도 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른바 ‘쎈대’

는 존재한다.

그 시절 어른들은 “애들이나 타는 차”라며 스쿠프를 폄하했다. 반대로 수많은 젊은이는 가슴 한쪽에는 스쿠프를 ‘드림카’로 담아놓고 살았다. 기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1995년, 21살의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 심장을 방망이질하던 스쿠프를 마침내 거머쥐었다. 겹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막노동 현장에서 힘겹게 방학을 보낸 대가였다.

당시에도 ‘대학생의 자가용 등교’는 사회 문제였다. 남들의 눈을 피해 캠퍼스 한쪽에 차를 숨기고 내릴 때마다 뒤통수는 따가웠다. 그래도 스쿠프를 탄다는 사



실에 가슴은 늘 뜨거웠다.

따져보면 스쿠프는 현대차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 못잖게 여러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다. 국산차 최초의 △2도어 쿠페 △최초의 4기통 12밸브 엔진 △최초로 제로백 10초 돌파(스쿠프 터보) △최초의 시속 200km 돌파 등이 스쿠프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스쿠프를 다시 시승했다. 눈앞에 다가온 스쿠프는 예전 감성을 풍풍 뿜어냈다.

데뷔 30년이 지났지만 묵직한 도어느낌은 예전 그대로다. 2도어 쿠페인 덕에 여느 세단보다 도어 크기가 넉넉했던 덕이다.

보닛 아래 달린 H 엠블럼은 한없이 작아 보인다. 그 무렵 현대차가 모두 그랬다. 요즘이야 엠블럼 크기를 마음껏 키울 만큼 현대차의 자신감도 커졌다.

실내에 들어앉아보면 그 시절 현대차가 얼마나 과감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스포츠카는 아니었으나 스포츠카를 겨냥한 다양한 시도가 구석구석 숨어있다. 스포츠 성이 다분한 3스포크 타입의 운전대, 짧고 뭉툭한 수동변속기 레버, 계기판을 가득 채운 커다란 속도계, 원형

다이얼 등이 스포츠카의 DNA였다.

그 시절 스쿠프는 고급 세단 옆에 세워도 존재감이 뚜렷했다. 커다란 도어를 열고 내리는 오너는 차를 아는 진짜 멋쟁이로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스쿠프가 등장한 지 30년이 됐다. 현대차 고성능 스포츠카의 ‘맥’은 티뷰론과 투스카니로 이어졌고 제네시스(BH) 쿠페가 첫 뒷바퀴 굴림 쿠페로 이름을 남겼다. 이제 다음 세대의 역사는 내년에 등장할 제네시스 G70 기반의 2도어 쿠페가 쓰게 된다.

자동차 회사의 ‘헤리티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은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차의 고성능 헤리티지가 시작했던 1990년. “그때, 그때를 아십니까.”

김준형 기자 junior@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 하는대로 돈보이는 금융생활

쉽고 편리한 금융생활 돈보기, 우리WON뱅킹



WON하는대로
우리WON뱅킹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08.12 준법감시인-1840 심의필(유효기간 : 2021.08.31)

“빛의 새로운 가능성 ‘인간중심조명’ 혁신성 인정”

〈HCL·Human Centric Light〉

‘국제광융합엑스포’ 대통령상…삼성전자 최윤준 상무

청록색 파장대 빛 조절, 집중력 향상·편안한 휴식 2종 패키지
생체 리듬 고려한 스펙트럼·멜라토닌 분비 조절 신개념 LED

삼성전자가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국제광융합엑스포’에서 인간중심조명(HCL·Human Centric Light)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제광융합엑스포는 LED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산업을 이끌어 갈 업계 종사자와 최신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LED 업계 대표 행사로 올해 18회째를 맞이했다.

삼성전자 LED사업팀 조명마케팅그룹 최윤준 상무는 “이번 수상은 인간중심조명 기술의 우수성을 넘어 빛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삼성전자 LED사업팀은 고효율 제품부터 식물 생장용 조명, 스마트 조명 등 차세대 LED 광원을 개발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미국 CES, 일렉트라 어워드(Elektra Awards) 등 해외 어워드에 이어 국내에서도 LED 업계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

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에는 삼성전자 LED 라인업 ‘LM302N’ 개발이 주효했다. ‘LM302N’은 사람의 멜라토닌 분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청록색 파장대의 빛을 조절한 제품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LM302N DAY’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LM302N NITE’ 2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에는 생체 리듬을 고려해 스펙트럼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신개념 LED 기술이 적용됐다. 최 상무는 삼성의 기술이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며 이번 제품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의 인간중심조명은 빛의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해 태양광을 모사했던 기존 개념에서 진일보한 제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트럼까지 제어해 생체리듬에 최적화된 빛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삼성의 스펙트럼 기술은 신체의 각성과 이완에 작용하는 멜라토닌 조절에 관여해 시작적으로 똑같은 빛이라도 목적에 따라 활력 또는 휴식을 증진하는



삼성전자 LED사업팀 조명마케팅그룹 최윤준 상무가 ‘2020 국제광융합엑스포’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LM302N’ NITE 부스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있다.

데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인간중심조명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기술인 만큼, 이 기술을 고안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

최 상무는 “조명업계는 오랜 시간 동안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빛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케어할 수 있는 새로운 조명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최 상무는 삼성전자 LED가 4차 산업과 결합해 광융합산업의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명 산업에서도 삼성 LED가 곧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바이든 [선거조작으로] 이겼다”
트럼프, 첫 패배 인정? ‘아차!’
곧바로 “우리는 이길 것” 수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부정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표현했다가 뒤늦게 수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윗에 “그는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다. 어떠한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날 밤에 발생했었던 모든 기계적 결함은 표를 도둑질하려다 들킨 것이지만, 그들은 들이지 않고 많이 성공했다”며 “우편투표는 역겨운 조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대선 패배 인정’이라기보다는 ‘대선 = 사기’라는 기존 주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미국 언론들은 그가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탈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파터를 교체하고 있다. 로이터

가 ‘이겼다(won)’고 표현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음모론으로 돌리면서도 처음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바이든이 ‘이겼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에 재차 “우리는 이길 것! 그의 승리는 가짜 뉴스 미디어의 판단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것은 조작된 선거였다”고 게재하면서 뒤늦게 수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실패를 인식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항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느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알겠나. 나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패배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뒀다. 변호선 기자 hsbun@

임성재, 마스터스 공동 2위…우승은 코로나19 물리친 더스틴 존슨



임성재(22·오른쪽)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 7번 홀에서 더스틴 존슨(미국)이 티샷을 날린 후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고 있다. 한 달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존슨은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마스터스 사상 최저타를 기록하며 우승했고, 임성재는 존슨에 5타 뒤진 15언더파 273타로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으로 경기한 임성재는 아시아 국적 선수 가운데 마스터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됐다. 종전 이 부문 기록은 2004년 3위에 오른 최경주(50)였다. 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AP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청년스타트업 육성 나선 현대차

‘스타트업 챌린지’ 데모데이 온라인 개최…316개 팀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H-온도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소셜벤처 육성 사업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13~14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데모데이 및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첫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인도네시아의 교육, 환경,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꿈꾸는 청년 체인지메이커를 선발하는 이번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에는 총 316개 팀이 지원했다.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는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 유치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각 팀당 기본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도 지원했다.

선정된 팀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이동 지원 및 일자리 마련 위한 서비스사업 △밀가루 대체 식품 제조업 △유기 폐기물 관련 친환경 사업 △농촌 지역 고용창출 위한 디지털마케팅 교육사업 △데이터 관리 통한 양식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창업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법정

◆조달청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종화 ◇기술서기관 승진 △구매총괄과 이병철

◆방위사업청 ◇국장급 신규 임용 △감사관 전영진 ◇과장급 전보 △재정운영담당관 이명 △개발사업담당관 송인출 △지원합사업팀장 이종주 △감시전자계약팀장 박근영

◆국립공원공단 ◇임명 △국립공원공단 감사 유기준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심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 임재영 △미래전략본부장 백종혁 △재무팀장 이병희

◆SPC그룹 ◇전무 승진 △김범수(SPC삼립) △손권식 △송정훈 △황성철(이상 파리카라상) △백승천(SPC) ◇상무 승진 △박용중 △안영민 △정규중(이상 SPC삼립) △권성준 △이재열(이상 파리카라상) △이

주일(SPC팍) ◇상무보 △김재섭 △최재규(이상 SPC삼립) △김용남 △석태하 △이동제(이상 파리카라상) △유시영(비알코리아) △이영석(SPC GFS) △백승훈 △서휘민(이상 SPC) △양희환(SPC팍)

◆오비맥주 ◇승진 △수석부사장 구자범

◆한국일보 ◇승진 △인세인(전무) 권동형 △주필(이사) 이종재 △뉴스룸국장 이영태 ◇전보 △논설위원 이태규

◆디지털조선일보 △콘텐츠사업본부장 김미선 △글로벌미디어실장 방성훈 △조선뉴미디어센터장 조은주

◆부산일보 △논설위원 이병철 △편집국장 손영신 △광고국장 김진 △디지털사업국장 박승봉 △미래전략사업단장 강운경 △북항사육추진단장 편창식

◆뉴스투데이 △편집국장 수석부국장 겸 산업부장 장원수

◆미디어펜 ◇승진 △부사장 겸 편집국장 민병오

◆토크스타뉴스 ◇승진 △영상부장 임경진 △취재부장 한수지

부음

▲박우선 씨 별세, 김지강(농진청 원예작물부장)·지태(프로라젠 대표이사)·연희 씨 모친상, 최병환(CJ CGV 대표이사) 씨 장모상 = 15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32-517-0710

▲엄순희 씨 별세, 조용관(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숙·순실(들꽃정소년세상 대표)·인자·희진(법무법인 담박 대표 변호사) 씨 모친상, 황신준(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김현수(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최용태·송수근(계원에술대학교 총장) 씨 장모상 = 15일,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58-5940

▲서송묵(전 연합뉴스 제주취재본부장) 씨 별세, 서안나·승철(전 YTN 보도국 영상취재1부 부장)·지나·후나·승일 씨 부친상 = 15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6분향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64-744-4444

▲맹관호(전 서울산업대 교수) 씨 별세, 이복희 씨 남편상, 맹정균(분당 선한의원원장)·정순·창순·인균(발렉스코리아 재경이사)·성균(전국전세서비스공제조합 경기보상서비스센터 대물보상팀장) 씨 부친상, 황창호(전 연합뉴스 기자)·최경문(한국폴리텍대 서울강서캠퍼스 교학처장) 씨 장인상, 정호선(한 의사)·윤민섭(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진선영 씨 시부상 = 16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31-787-1500

▲조중열 씨 별세, 김창선(NH농협은행 카드신용관리부장, 전 농협중앙회 언론국장) 씨 장인상 = 16일, 경산 옥산전문장례식장, 발인 18일, 053-801-4443

▲송복수 씨 별세, 조석현(사업)·봉현(IBK기업은행 부행장·IBK경제연구소장)·종현(LG하우시스 지점장)·양선 씨 모친상 = 16일, 부산전문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51-312-4444

▲손경원 씨 별세, 손도연(중도일보 기

자) 씨 부친상 = 16일, 충북 증평군 대한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43-836-7002

▲이형우 씨 별세, 이소은 씨 부친상, 김윤석(전 대전일보 편집국장·이사) 씨 장인상 = 15일, 대전성심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낮 12시, 042-522-4494

▲최관식(전 3-4구 잠수기수협조합장) 씨 별세, 최광해(우리금융경영연구소대표이사)·은희·홍석(해남군정 주무관) 씨 부친상, 서기영(미국 인터메틱스 수석이사) 씨 장인상 = 15일,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9시, 061-692-4444

▲박동식 씨 별세, 박선·미영 씨 부친상, 김주현(SK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 PL) 씨 장인상 = 15일, 광주광역시 빛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62-452-4000

▲오명희 씨 별세, 이재국·현욱 씨 모친상, 권오식(KB증권 평택지점장) 씨 장모상 = 15일, 평택 안중장례문화센터 주목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031-683-6868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학계를 두루 걸쳤던 이 회장은 1990년대 대우그룹 해체 당시부터 하이닉스, LG카드 등 다양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이에 △진보주의자 △원칙주의자 △재벌개혁 경제학자 등 따라붙는 수식어가 다양하다. 그의 성향이 주효했을까. 회장 취임 후 △금호타이어(중국 더블스타 매각)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과 본계약) △STX조선해양(매각 추진) △두산중공업(계열회사 매각 추진) △아시아나항공까지 다수의 구조조정과 M&A를 추진했다. 표면적으로 불필요하게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대기업을 최소화하려는 이 회장의 의지가 확인됐다. 무려 20년을 관리하던 대우조선의 매각을 결정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싶다.

이 회장 관점에서 “채권단 지원 없이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은 M&A를 통해 빠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이다. 정부가 잡고 있는 부실 기업 지원은 장기적으로 해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론이다. 산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다. 총 4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조50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수혈받고도 법정관리에 몰린 STX조선, 한진해운의 파산, 전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까지 발생한 대우조선 사례 등이 떠오른다.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이 결과적으로 과잉 투자와 경기 침체를 유발한 셈이다.

구조조정 과정은 또 어떠했는가.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겹쳤다. 정권의 실세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표심에 휩쓸려 일신의 영달에만 치중했다. 그 결과, 시중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에서 짐을 썼고, 과도한 혈세 낭비란 원색적인 비난에 내부의 사기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의 구조조정 핵심은 ‘단기적 기회비용’에 과감한 결단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화그룹이 제안했던 대우조선 매각가격은 6조 원이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1조2500억 원 규모의 우선주(한국조선해양)와 7.9% 지분을 배정받고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했다. 조선업 불황 등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도 매각 가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결국 자금 회수 문제는 이 회장의 관심 밖이라는 얘기가. 가격이 낮더라도 적기에 매각해 정

상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이 회장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전제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내 거래 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 주인을 찾아 조기 정상화 길로 안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독과점 문제 또는 대기업 특혜 시비나 시장 지배력 집중 문제 등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다. 이 회장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해야 할 정부가 자칫 특정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어찌 됐건 취임 후 질긴 악연이던 아시아나 정상화 방안의 윤곽이 또다시 그려졌다.

산은 등 채권단이 한진칼에 3자 배정증자로 5000억 원, 교환사채(EB) 인수로 3000억 원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에 제안한 인수가격과 비슷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이 회장의 해법이 묘수가 될려면 아직 남아야 할 산이 많다. 코로나19로 끝 모를 불황에 빠진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채권단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묘수가길 기대한다. 산업은행이 잘 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acw@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정치논리 아닌가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이 기존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의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환경·수요 등의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되고, 여당이 주장하는 가덕도신공항으로 바뀌는 수순으로 보인다.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된 국책과제의 추진 방향을 정치논리로 뒤집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의 이해와 직결돼 있다. 또다시 동남권 신공항이 표류하고 참여한 지역감정을 증폭시킬 우려도 크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10여년간 영남의 지역대립을 부추겨온 사안이다. 신공항은 2007년 대선 때의 공약으로 논의가 불붙었으나, 2011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2013년 다시 추진되면서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를, 대구·경북은 밀양을 후보지로 내세워 충돌이 빚어졌다.

정부는 2016년 6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보완하는 대안으로 정리했다.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

와 밀양 모두 부적합하고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관련 5개 광역단체장들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단체장들이 다시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소음과 안전성, 환경훼손의 문제가 크고, 경제성 및 확장성이 부족하며,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키웠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계획을 총리실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결정의 번복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없으며, 종전 결정대로 밀고 나간다고 했던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바뀌었다. 김해신공항 검증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결과는 김해신공항 계획의 백지화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도 신공항은 가덕도 쪽일 게 분명하다. 어렵게 매듭지어진 갈등 이슈를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형클고 있다. 총리실의 타당성 검증이 전문성과 신뢰성, 공정성의 측면에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공항 사업이 혼란을 빚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론의 소모적 분열 또한 불가피하다.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8년 만에 최종 서명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시장개방 협상을 지난해 완료하지 못하고 협정문 타결만 선언한 뒤 이번 서명을 통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최종 서명까지 8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던 것만 봐도 각국의 이해가 다르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의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세계 비중 28.7%),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세계 비중 30%), 인구는 22억 6000만 명(세계 비중 29.9%)에 달하는 초대형 FTA다. 게다가 한국의 주요 경제 불룩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기준 대(對)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달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수출 규모가 각각 898억 달러, 126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RCEP이 앞으로 한국의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

관세 떼고 맞짱 뜨면

큰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며칠 전 기사 관련 회의 중 통상 이야기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한 자유무역이 확대할 것이란 예상에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면서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RCEP으로 이어졌고 일본, 일본산 자동차와 국산차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일 관계 악화로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제품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판매가 예전보다 덜 되고 있는 데 한·일 관계 개선으로 반일 감정이 줄어들면 같은 가격이면 일본산 자동차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 1~10월 일본산 수입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혼다 67.3%, 토요타 43.3%, 렉서스 39.2%, 니산 23.5% 감소했다.

영화 ‘분노의 질주 3(패스트 &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에 현대차를 안 좋게 비유하는 대사가 있었다. 등장인물인 한이 주인공인 선에게 성능이 좋은 거리 레이스용 차를 빌려주자 선이 “진심이나?”고 묻고 이에 대해 한이 “그럼 현대차로 경기할래”라는 대사다. 기분이 나빴다. 국민 대부분은 한국산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받길 원한다. 그 제품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내가 투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RCEP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첫 FTA를 맺었다. 이번 RCEP에선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이라는 점과 우리 산업의 대일본 민감성을 고려해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게 통상당국의 설명이다. 양국의 관세 철폐 품목수는 둘 다 83%로 동일하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무관세이지만 우리나라는 8%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산품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각각 91.7%, 94.1%로 우리나라가 더 지킨 셈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로서 더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아직 우리 공산품이 일본에 못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흔히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란 말처럼 ‘관세 떼고 맞짱’ 뜨면 우리 공산품의 승산은 크게 높진 않은 것이다. 물론 RCEP이 다자 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 있는 품목도 많다.

다만 RCEP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별로 변화된 환경(경쟁력) 등을 고려해 개선 협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관세의 보호막에서 더 자유로운, 제품 자체의 경쟁력 만으로도 협상 무대에 당당히 오를 수 있길 바란다. riby@

특허, 특!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 처벌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서 국내 기업들끼리 특허분쟁이 생겨도 미국으로 먼저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다. 당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은 특허침해 소송이 미국에서 먼저 벌어지고, 뒤이어 한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액수를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기 쉽다. 특허법에는 손해액 대신 상대방이 얻은 이익액의 제수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 더해 특허권자의 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종전에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던 내용을 보완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12월부터는 종전에 허용되지 않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도 추가로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때도 실시료 계산을 ‘합리적 실시료율’로 계산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민사배상을 강화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의 형사적 처벌인 침해죄 역시 특허권자가 고소해야 되는 ‘친고죄’에서 특허권자의 반대가 없으면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었다. 앞으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강화로 뒤늦게나마 특허 중시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므로 특허침해품의 ‘영업행위’에도 상법을 적용한다면 특허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알면 알수록 타면 탈수록 자동차 금융도 역시 KB



**구매는
더 부담 없게**

우대금리 적금과 여유로운
대출한도로 구입자금을
더 쉽고 빠르게 모아요



**거래는
더 안심되게**

인공지능기술로 정확한
중고차의 시세를 확인해요



**운전은
더 안전하게**

안전주행하고
보험료도 할인받아요



**생활은
더 알뜰하게**

주유, 정비 등 다양한
카드 할인 혜택을 누려요



금융은 역시
KB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국민카드 | KB캐피탈

KB증권 | 푸르덴셜생명 | KB자산운용 | KB생명보험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신용정보

*** KB 금융그룹**